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5)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 측정 및 맞벌이 요인

1998. 10

통 계 청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의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것이며 통계청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5)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 측정 및 맞벌이 요인

연구자 : 상 명 대 학 교

양 세 정
주 인 숙

통 계 청

머 리 말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91년에 이어 19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비농가중 약 30,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대상가구에서 매일 매일 가계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하고, 저축과 부채·연간소득·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은 직접 방문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부담이 크고, 조사대상가구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의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조사입니다만 여러단계의 준비를 거쳐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쳤고 유용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다 널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초에 5개 주제를 선정하여 종합분석사업을 시작하였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번에 종합분석 내용을 주제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별 보고서중 제1권에서는 우리나라 가구들의 금융자산보유현황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을 찾고자 하였으며, 제2권에서는 유동성제약하에서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결정에 있어 유동성제약의 중요성을 추정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권에서는 지역별 소득 및 소비지출 패턴의 차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지역별 형평을 고려한 개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권에서는 저소득층가구의 생활실태 분석과 도시 자영업자 소득을 추계하여 경제위기 국면에서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위협이 가구에 미칠 파급효과를 전망하므로써 정부의 대응방안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권에서는 여성의 활발해진 경제활동참여와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의 생활실태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고용정책 및 육아정책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관련분야별로 연구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종 경제·사회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96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사대상가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통계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8년 10월

통 계 청 장
윤 영 대

- 목 차 -

I. 서론	1
1.1 연구문제의 제기	1
1.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II. 연구내용 및 방법	5
2.1 연구내용	5
2.2 연구방법.....	8
III.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가구특성	10
3.1 가구구분	10
3.2 거주지역	11
3.3 가구원수.....	13
3.4 연 령.....	14
3.5 교육수준.....	15
3.6 취업인수.....	17
3.7 직업.....	18
3.8 입주형태.....	19
3.9 동거세대구분	19
3.10 취학자녀 존재여부.....	20
3.11 주택대출상환여부.....	21
3.12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특성 요약.....	21
IV. 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	23
4.1 맞벌이가구 결정모델.....	23
4.2 주부취업의 결정요인.....	24
V. 가계경제구조 분석: 소득	28
5.1 맞벌이상태에 따른 소득구조.....	28
5.2 소득분위별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분포.....	34
5.3 배우자소득의 가구주소득에 대한 비율.....	37
5.4 소득구조 분석 요약.....	38

VI. 가계경제구조 분석: 소비지출	39
6.1 소비지출규모와 구조.....	39
6.2 소비지출에 대한 맞벌이상태의 효과분석.....	53
6.3 소비지출구조 분석 요약.....	63
VII. 가계경제구조 분석: 소비성향 & 흑자액	64
7.1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구조.....	64
7.2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가계경제수지.....	65
VIII. 가계경제구조 분석: 저축과 부채	69
8.1 저축보유여부와 구조.....	69
8.2 부채보유여부와 구조.....	76
8.3 순저축보유액.....	82
8.4 저축과 부채 구조 요약.....	85
IX. 맞벌이 가구의 가계경제 기여도 산출	86
9.1 산출방법	86
9.2 주부취업의 가계경제 기여도.....	87
X. 결 론	91
참고문헌	93

- 표·그림 목 차 -

[표]

<표 1-1>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2
<표 1-2>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수 및 구성비.....	3
<표 3-1>	조사대상가구의 맞벌이상태.....	10
<표 3-2>	가구구분별 맞벌이상태.....	11
<표 3-3>	거주지역별 맞벌이가구 분포.....	12
<표 3-4>	맞벌이가구의 도시규모별 맞벌이상태.....	12
<표 3-5>	시부/군부별 맞벌이상태.....	13
<표 3-6>	가구원 수별 맞벌이상태.....	13
<표 3-7>	가구주-배우자 연령계층별 맞벌이상태.....	14
<표 3-8>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연령계층별 직업분포.....	15
<표 3-9>	교육수준별 맞벌이상태.....	16
<표 3-10>	맞벌이가구 배우자 교육수준과 직업.....	17
<표 3-11>	취업인 수에 따른 맞벌이상태.....	17
<표 3-12>	가구주 및 배우자 직업에 따른 맞벌이상태.....	18
<표 3-13>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업별 분포.....	18
<표 3-14>	입주형태에 따른 맞벌이상태.....	19
<표 3-15>	동거세대구분에 따른 맞벌이상태.....	20
<표 3-16>	취학자녀 존재여부에 따른 맞벌이상태.....	20
<표 3-17>	주택대출상환여부.....	21
<표 3-18>	맞벌이여부별 가구특성 요약.....	22
<표 4-1>	맞벌이가구 결정요인: 로짓분석결과.....	25
<표 4-2>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 결정요인: 로짓분석결과.....	27
<표 5-1>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소득구조.....	29
<표 5-2>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소득 특성.....	29
<표 5-3>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직업별 소득구조.....	30
<표 5-4>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직업별 배우자소득 특성.....	31
<표 5-5>	소득계층별 소득구조.....	32
<표 5-6>	맞벌이가구의 소득계층별 배우자소득 특성.....	32
<표 5-7>	맞벌이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	33
<표 5-8>	맞벌이가구의 연령계층별 배우자소득 특성.....	33

<표 5-9>	소득10분위 분류에 따른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분포.....	35
<표 5-10>	가구주 및 배우자의 소득 5분위별 분포(N=5,075).....	36
<표 5-11>	특성별 배우자소득의 가구주소득에 대한 비율.....	37
<표 6-1>	소비지출비목별 월평균지출규모 및 구성비.....	40
<표 6-2(1)>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41
<표 6-2(2)>	비맞벌이에 대한 맞벌이가구의 지출규모 변화율 순위.....	41
<표 6-2(3)>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	42
<표 6-3(1)>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직업별 소비지출규모.....	44
<표 6-3(2)>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직업별 소비지출구성비.....	45
<표 6-4(1)>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규모.....	47
<표 6-4(2)>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성비.....	48
<표 6-5(1)>	연령계층별 소비지출규모.....	51
<표 6-5(2)>	연령계층별 소비지출구성비.....	52
<표 6-6>	맞벌이여부가 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t-값) (배우자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동일한 경우).....	55
<표 6-7>	맞벌이여부가 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t-값) (가족소득이 동일한 경우).....	56
<표 6-8>	배우자직업별 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t-값) (배우자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동일한 경우).....	59
<표 6-9>	배우자직업이 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t-값) (가구소득이 동일한 경우).....	60
<표 6-10>	맞벌이여부가 소비지출구성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62
<표 7-1>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구조.....	64
<표 7-2>	근로자가구의 가계경제수지.....	65
<표 7-3>	근로자가구의 배우자직업별 가계경제수지.....	66
<표 7-4>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경제수지.....	66
<표 7-5>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가계경제수지.....	67
<표 8-1>	조사대상가구의 저축보유여부.....	69
<표 8-2>	배우자직업별 저축보유여부.....	70
<표 8-3>	소득계층별 저축보유여부.....	70
<표 8-4>	연령계층별 저축보유여부.....	71
<표 8-5>	저축규모 및 구조.....	72
<표 8-6>	배우자직업별 저축보유액.....	72

<표 8-7>	소득계층별 저축보유액.....	74
<표 8-8>	연령계층별 저축보유액.....	75
<표 8-9>	맞벌이가 저축보유액에 미치는 영향: 로짓분석결과.....	76
<표 8-10>	부채보유여부.....	77
<표 8-11>	배우자직업별 부채보유여부.....	77
<표 8-12>	소득계층별 부채보유여부.....	78
<표 8-13>	연령계층별 부채보유여부.....	78
<표 8-14>	부채규모 및 구조.....	79
<표 8-15>	배우자직업별 부채규모 및 구조.....	80
<표 8-16>	소득계층별 부채규모 및 구조.....	81
<표 8-17>	맞벌이상태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82
<표 8-18>	순저축보유액.....	83
<표 8-19>	배우자직업별 마이너스 순저축보유액의 가구비율.....	83
<표 8-20>	배우자직업별 순저축보유액.....	83
<표 8-21>	소득계층별 순저축보유액.....	84
<표 9-1>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87
<표 9-2>	배우자직업별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88
<표 9-3>	소득계층별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89
<표 9-4>	연령계층별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90

[그림]

<그림 1-1>	여성취업자의 연령계층별 추이.....	3
<그림 2-1>	연구모델.....	7
<그림 2-2>	조사대상 맞벌이가구의 추출과정.....	8
<그림 3-1>	배우자의 연령계층별 직업분포.....	15
<그림 3-2>	배우자교육수준별 맞벌이비율.....	16
<그림 5-1>	맞벌이상태에 따른 소득구조.....	28
<그림 5-2>	맞벌이가구 연령계층별 소득구성.....	34
<그림 5-3>	소득10분위 분류에 따른 가구분포.....	35
<그림 5-4>	맞벌이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소득 10분위.....	36
<그림 6-1>	맞벌이여부에 따른 소비지출구성비의 차이.....	61

<그림 7-1> 연령계층별 평균소비성향.....	68
<그림 8-1> 배우자직업별 저축보유액.....	73
<그림 8-2> 연령계층별 저축보유액.....	75
<그림 8-3> 연령계층별 부채보유액.....	81
<그림 8-4> 연령계층별 저축 및 부채, 순저축보유액.....	84

I. 서론

1.1 연구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양적, 구조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해 왔다. 1965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5%이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 49.5%의 수치를 나타냈다(표 1-1 참조).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경제활동인구인 21,604천명 중 40.9%에 해당하는 8,843천명이다.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실제 취업자는 1997년 현재 8,63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 여성취업상태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의 여성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20대 이상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3, 40대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이는 중년의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함을 시사하는 현상으로, 실제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72.0%에서 1997년 현재 75.8%로 증가하였으며(표 1-2 참조), 특히 유배우자 기혼여성의 비율이 동기간 중에 59.0%에서 63.1%로 증가하였다.

맞벌이가구의 증가원인은 우리사회의 제반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측면이 서로 맞물려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여성의 가정시간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여성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 자녀수의 감소 및 가정노동대체품의 발달 등 제반 여건은 여성의 가정시간사용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시장노동에 대한 시간사용을 늘였다.

또한 노동수요측면에서 경제의 서비스화 및 소프트화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동과 이에 따른 노동력의 재배치, 고용형태의 다양성은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켰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형태의 급속한 보급은 기혼여성에게 직장과 가정의 일의 병행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한편 현대사회의 급속한 기술발달 및 개방화의 진척은 가정으로 하여금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물질소비에 대한 요구는 소득증가를 위한 가계의 노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주부취업 증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여성취업의 일반화를 촉진하였으며 특히 고학력 중상위계층 여성에 있어 사회

진출을 통한 자아실현의 가치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성취업증가에 따른 맞벌이가구 증가는 산업화사회에 있어 여성유휴인력의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렇듯 기혼여성의 취업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구특성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맞벌이가구는 가계에 배우자 소득을 추가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비맞벌이가계와는 다른 소득구조를 형성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주부의 취업관련비용을 야기함으로써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달라짐에 따라 생애기간동안 소비를 재분배하는 수단인 저축 및 부채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벌이상태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맞벌이가 가계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가계경제구조란 가계소득과 소비지출구조, 저축 및 부채구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 가계경제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토대로 맞벌이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기여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표 1-1>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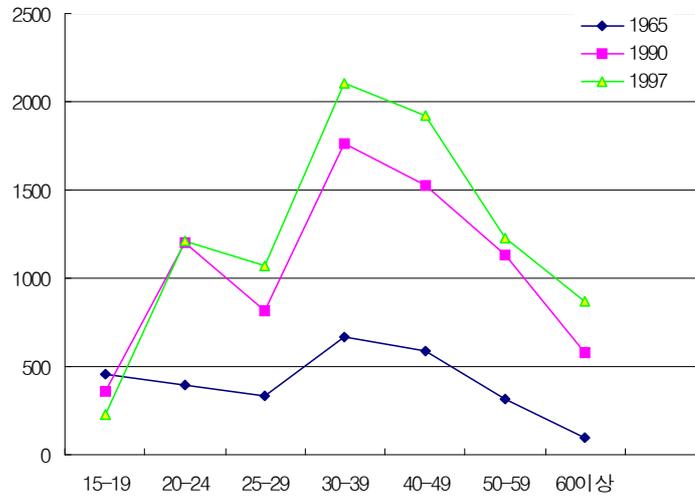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성별 참가율비 (여/남)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1965	15,937	8,859	55.6	76.6	8,351	3,051	36.5	47.7
1975	21,833	12,340	56.5	74.5	11,257	4,456	39.6	53.2
1985	27,553	15,592	56.6	72.3	14,258	5,975	41.9	58.0
1990	30,887	18,539	60.0	74.0	15,980	7,509	47.0	63.5
1991	31,422	19,048	60.6	74.9	16,243	7,684	47.3	63.2
1992	31,898	19,426	60.9	75.5	16,501	7,799	47.3	62.6
1993	32,400	19,803	61.1	76.0	16,753	7,913	47.2	62.2
1994	32,939	20,326	61.7	76.4	17,023	8,159	47.9	62.7
1995	33,558	20,797	62.0	76.5	17,307	8,363	48.3	63.1
1996	34,182	21,188	62.0	76.1	17,593	8,568	48.7	64.0
1997	34,736	21,604	62.2	75.6	17,866	8,843	49.5	65.5

*1975년까지는 14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연보 각 연도.

<그림 1-1> 여성취업자의 연령계층별 추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연보 각 연도.

<표 1-2>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수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연도	여성취업자수	미혼	기혼	구성비 (%)	
				유(有)배우	사별/이혼
1980	5,222	28.0	72.0	59.0	13.0
1985	5,345	26.4	73.6	60.4	13.1
1990	7,376	24.5	75.5	62.8	12.7
1991	7,535	25.2	74.8	62.2	12.7
1992	7,639	24.8	75.2	62.6	12.7
1993	7,738	25.2	74.8	62.5	12.3
1994	8,005	25.3	74.7	62.3	12.4
1995	8,224	25.2	74.8	62.3	12.5
1996	8,434	28.2	75.2	62.7	12.5
1997	8,639	24.2	75.8	63.1	12.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연보 각 연도.

1.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맞벌이가구 결정요인 및 맞벌이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이 기대된다.

첫째, 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맞벌이가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맞벌이형태는 여성노동인력의 이용이란 점에서 가계경제 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그 중요성을 갖는다. 취업주부 개인 및 맞벌이가구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여성노동수요의 특성 및 가구특성을 알게 되며 이는 앞으로 더욱 증가추이가 예상되는 맞벌이가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계복지 및 노동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맞벌이가구에서 주부취업은 주부의 가정시간 사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가정시간은 가계생산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부취업으로 인해 증가된 소득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가계의 복지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셋째, 맞벌이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가계의 필요에 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생산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맞벌이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취업관련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함께 이에 대한 원활한 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맞벌이에 따른 가계저축 및 부채구조상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특정세분시장에 대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여성취업에 따른 직, 간접비용을 산출함으로써 취업주부에 대한 육아비용의 보조나 세금혜택 등과 같은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맞벌이에 의한 가계경제구조상의 변화에 관한 정보는 가계의사결정시 유익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가계는 주부취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실질적 가계수지의 향상정도를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계의 장기적 가계운용전략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주부취업이 가계경제수지에 미치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주부취업에서 비롯되는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유희여성인력의 잠재적 경제성 분석 및 여성취업증대에 따른 국가 경제력 향상 규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맞벌이가구의 가계경제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향후 관련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맞벌이가구의 지속적 증가는 가계의 자원획득 및 소비행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본 연구는 맞벌이가구의 가계경제구조 분석을 통하여 주부취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기여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목표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가구특성을 비교한다.

제3장에서 맞벌이와 비맞벌이의 가구특성을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구분 및 거주지역, 도시규모, 가구원수, 배우자교육수준, 배우자연령, 입주형태, 동거세대구분, 취학자녀여부, 주택대출상환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기준으로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맞벌이가구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맞벌이가구를 배우자의 직업별로 나누어서 가구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맞벌이가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2) 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제4장에서는 노인가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부부가구로 구성된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과 3장에서 고찰된 중요한 사회인구학적 변수, 그리고 소득, 저축보유액 등의 경제적 변수를 고려변수로 하여 맞벌이상태(맞벌이; 비맞벌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나누어서 분석함으로써 소득계층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3) 맞벌이상태가 소득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소득구조를 연간소득을 중심으로 비교

함으로써 맞벌이상태의 소득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 하였다. 소득출처별 규모와 구성비를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간 비교함으로써 맞벌이가구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4) 맞벌이상태가 소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구조를 비교함으로써 맞벌이상태가 소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세부비목별로 소비지출규모와 구성비를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간 비교함으로써 맞벌이가구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지출에 미치는 여타 가구특성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맞벌이상태의 소비지출구조에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을 각 세부지출비목별로 수행하였으며, 지출구성비에 대하여도 실시하였다.

(5) 맞벌이상태가 가계경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간의 가계경제수지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맞벌이상태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가계경제수지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소비성향, 흑자액 및 흑자율 등을 사용하였다.

(6) 맞벌이상태가 저축/부채보유액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8장에서는 맞벌이상태가 저축보유액 및 부채보유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가구 전체뿐만 아니라 맞벌이여부별, 또 맞벌이 중에서도 배우자직업별, 소득계층별, 연령계층별 등과 같은 가계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저축 및 부채의 보유여부 및 규모, 구성비, 그리고 맞벌이가 가계의 저축 및 부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구의 특성별 순저축 및 부채대비 저축상태를 통해 가계의 경제상태를 진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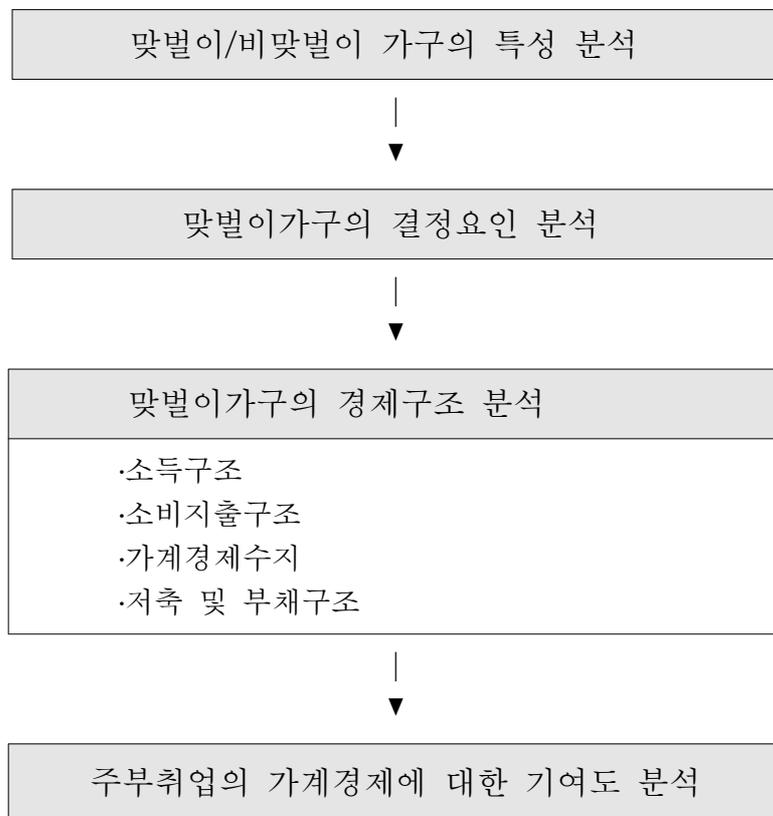
(7) 맞벌이가구의 가계경제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한다.

제9장에서는 주부소득의 사용용도를 추적함으로써 가계경제에 대한 경제적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주부소득에 의한 가계저축 및 소비지출의 변화분을

산출하고, 이 중 취업관련비용부분을 추정하여 제함으로써 주부소득에 의한 경제적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가구특성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기여도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맞벌이가구를 다시 직업별, 소득계층별, 연령계층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설명된 연구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연구모델



2.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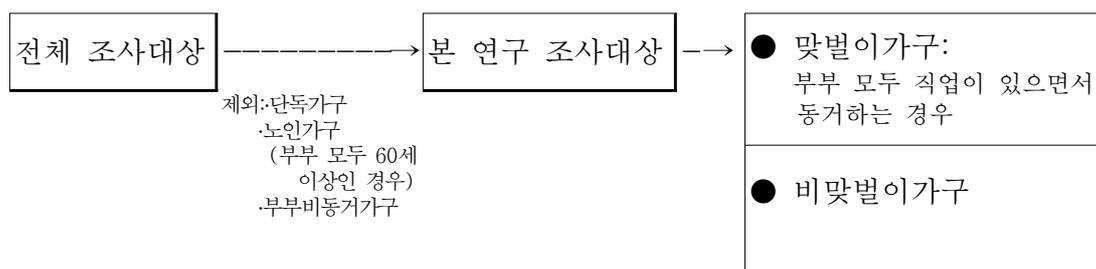
(1) 맞벌이가구의 정의

통계청의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맞벌이가구란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한 가구를 의미하며, 동거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는 맞벌이가구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 정의에 따르며, 단지 취업주부가구 중 배우자유무 및 부부동거여부에 따라 가계경제구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구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가계경제수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노인가구(부부 모두 60세이상)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일정한 연령이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만일 가구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비맞벌이가구에 보다 많은 노령층이 포함됨으로써 가계경제수지 비교를 통해 맞벌이가구의 영향력을 보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 및 맞벌이가구의 추출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2>과 같다.

<그림 2-2> 조사대상 맞벌이가구의 추출과정



(2) 자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매년 실시되는 '도시가계조사'와는 달리 배우자에 관한 특성변수를 포함함으로써 맞벌이가구 분석에 강점을 지닌다.

소비지출은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1996년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자료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저축보유액 및 부채보유액관련 자료는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소득관련자료는 연간자료 및 월평균자료를 분석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소득/소비지출의 항목 분류 및 저축/부채보유액의 항목별 분류는 기본적으로 원자료의 분류방법에 따랐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가구특성 및 가계경제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이항값(맞벌이=1; 비맞벌이=0)을 가질 때 사용하는 다변량분석으로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맞벌이상태가 소비지출구조 및 저축/부채보유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가구특성

3.1 가구구분

조사대상가구 17056명의 30.6%에 해당하는 5213가구가 맞벌이가구였다. 이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의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37.2%이었으며, 근로자의가구는 근로자가구의 절반정도 수준인 18.5%였다(표 3-1 참조).

근로자가구는 조사대상가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4.6%를 차지하였고 근로자의 가구는 35.4%를 차지하였다(표 3-2 참조). 근로자가구 중 사무직가구는 26.2%였고 생산직가구는 38.4%였다. 근로자의가구 중 사업자가구는 31.4%였으며 무직이 4.0%를 차지하였다.

맞벌이 및 비맞벌이가구를 가구구분에 따라 분석해보면 맞벌이가구 중 거의 절반인 49.1%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사무직 종사 가구는 29.4%였다. 이러한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성된 근로자가구는 맞벌이가구의 78.6%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자가구로 구성된 근로자의 가구는 21.4%를 차지하였다.

비맞벌이가구를 보면 근로자가구가 58.5%를 차지하고 근로자의 가구가 41.5%를 차지하였다. 근로자가구의 구성을 보면 사무직가구가 24.8%이고 생산직가구가 33.7%였다. 근로자의 가구 중에서는 사업자가구가 35.8%, 무직이 5.7%이었다.

<표 3-1> 조사대상가구의 맞벌이상태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의 가구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	100.0	30.6	69.4	100.0	37.2	62.8	100.0	18.5	81.5
(가구수)	(17,056)	(5,213)	(11,843)	(11,019)	(4,095)	(6,924)	(6,037)	(1,118)	(4,919)

※ 96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서 근로자의가구중 배우자가 무급가족 종사자인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맞벌이로 분류하지 않았음

- 다만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맞벌이가구를 재분류할 수는 있음

<표 3-2> 가구구분별 맞벌이상태

	계		맞벌이		비맞벌이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전가구	100.0	17,056	100.0	5,213	100.0	11,843
○근로자가구	64.6	11,019	78.6	4,095	58.5	6,924
사무직	(26.2)	4,470	(29.4)	1,535	(24.8)	2,935
생산직	(38.4)	6,549	(49.1)	2,560	(33.7)	3,989
○근로자외가구	35.4	6,037	21.4	1,118	41.5	4,919
사업자	(31.4)	5,358	(21.4)	1,118	(35.8)	4,240
무직	(4.0)	679	(0.0)	0	(5.7)	679

3.2 거주지역

거주지역별로 맞벌이가구 분포를 보면 서울에 13.7%, 부산(11.2%), 대구(6.8%), 인천(9.4%), 광주(6.0%), 대전(6.9%)의 광역시에 39.5%, 그리고 9개도에 분산해 있는 중소도시에 46.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그중 서울, 경기지역이 각각 13.7% 및 12.0%를 나타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는 5% 미만의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제주도는 2%만이 분포되어 가장 낮은 분포도를 보였다.

거주지역별 맞벌이비율을 보면 서울(31.0%) 및 부산(32.1%), 그리고 전남 및 경북을 제외한 중소도시에서는 30%를 넘는 비율을 보인 반면 나머지 대구(29.5%), 인천(29.8%), 광주(27.5%), 대전(27.7%)의 광역시에서는 30%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평균으로 볼 때 맞벌이가구비율은 중소도시(31.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서울(31.0%), 광역시(29.6%)의 순서였다.

도시규모별 배우자직업분포를 보면 전체 인구분포와 비슷하게 전직종에 걸쳐 9개도에 있는 중소도시에 42.3%~49.5%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3-4 참조). 준전문직 및 사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서울에 많이 있었으며 노무직/기타는 비교적 광역시에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다.

시부/군부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분포를 보면 관리전문직 및 준전문직은 비교적 시부에,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는 군부에 더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다(표 3-5 참조).

<표 3-3> 거주지역별 맞벌이가구 분포

(단위: %)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전체 (17,056)	100.0	100.0	100.0	100.0	30.6	69.4
○서울 (2,313)	13.6	13.7	13.5	100.0	31.0	69.0
○광역시 (6,959)	40.8	39.5	41.4	100.0	29.6	70.4
부산 (1,819)	10.7	11.2	10.4	100.0	32.1	68.0
대구 (1,196)	7.0	6.8	7.1	100.0	29.5	70.5
인천 (1,646)	9.7	9.4	9.8	100.0	29.8	70.2
광주 (1,126)	6.6	6.0	6.9	100.0	27.5	72.5
대전 (1,172)	6.9	6.2	7.2	100.0	27.7	72.3
○중소도시 (7,784)	45.6	46.7	45.2	100.0	31.3	68.7
경기 (2,053)	12.0	12.6	11.8	100.0	32.0	68.0
강원 (784)	4.6	4.8	4.5	100.0	32.1	67.9
충북 (764)	4.5	4.6	4.4	100.0	31.5	68.5
충남 (691)	4.1	4.1	4.1	100.0	30.5	69.5
전북 (666)	3.9	3.8	3.9	100.0	30.0	70.0
전남 (577)	3.4	3.3	3.4	100.0	29.6	70.4
경북 (724)	4.2	3.8	4.5	100.0	27.2	72.8
경남 (1,177)	6.9	7.3	6.7	100.0	32.5	67.5
제주 (348)	2.0	2.4	1.9	100.0	35.9	64.1

<표 3-4> 맞벌이가구의 도시규모별 맞벌이상태

(단위: %)

(가구수)	전체	맞벌이 (5,213)	맞벌이 분포				
			관리 전문직 (327)	준전문직 (362)	사무직 (486)	서비스직 (1,764)	노무직/ 기타 (2,274)
서울 (2,313)	13.6	13.7	14.1	19.3	19.1	11.5	13.4
광역시 (6,959)	40.8	39.5	39.1	38.4	33.5	38.9	41.5
중소도시 (7,784)	45.6	46.7	46.8	42.3	47.3	49.5	45.1
전체 (17,0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2,313)	100.0	31.0	2.0	3.0	4.0	8.8	13.2
광역시 (6,959)	100.0	29.6	1.8	2.0	2.3	9.9	13.6
중소도시 (7,784)	100.0	31.3	2.0	2.0	3.0	11.2	13.2

<표 3-5> 시부/군부별 맞벌이상태

(단위: %)

(가구수)	전 체	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관리 전문직	준전문 직	사무직	서비스 직	노무직 기타	
시 부 (14,800)	86.8	86.7	94.2	92.0	89.5	84.5	85.9	86.8
군 부 (2,256)	13.2	13.3	5.8	8.0	10.5	15.5	14.1	13.2
전 체 (17,0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 부 (14,800)	100.0	30.5	2.1	2.3	2.9	10.1	13.2	69.5
군 부 (2,256)	100.0	30.7	0.04	1.29	2.26	12.1	14.2	69.3
전 체 (17,056)	100.0	30.6	1.9	2.1	2.8	10.3	13.3	69.4

3.3 가구원수

조사대상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8명이였다. 그 중 4인가구가 4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인 가구가 23.3%였다(표 3-6 참조). 가구원수에 따른 맞벌이가구 분포를 보면 역시 4인가구에서 42.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인가구에서 21.3%, 5인가구에서 15.7%, 2인가구에서 14.2%가 분포되어 있었다.

가구원수에 따른 맞벌이비율을 보면 2인 및 5인 가구에서 각각 34.4% 및 33.5%로 가장 높았다. 6인이상 많은 가구원 수를 가진 가구에서도 32.5%로 높은 맞벌이비율을 나타내었으며, 3인가구에서는 27.9%, 4인가구에서는 29.6%의 맞벌이비율을 나타냈다.

<표 3-6> 가구원수별 맞벌이상태

(단위: %)

(가구수)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평 균	3.8	3.8	3.8			
2인 (2,148)	12.6	14.2	11.9	100.0	34.4	65.6
3인 (3,982)	23.3	21.3	24.2	100.0	27.9	72.1
4인 (7,407)	43.4	42.1	44.0	100.0	29.6	70.4
5인 (2,446)	14.3	15.7	13.7	100.0	33.5	66.5
6인이상 (1,073)	6.3	6.7	6.1	100.0	32.5	67.5
전 체 (17,056)	100.0	100.0	100.0			

3.4 연 령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41.6세이며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38.5세이었다. 이중 맞벌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1.6세, 배우자는 38.4세이었다. 비맞벌이가구도 맞벌이가구의 연령과 비슷하여 가구주는 평균 41.7세, 배우자는 38.5세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가구주 연령에 따른 맞벌이분포를 보면 가구주연령이 30대와 40대인 때에 맞벌이가구의 71.5%가 분포되어 있었다. 배우자연령을 보면 30대에 42.5%로 가장 높은 맞벌이분포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40대에 31.7%, 30대 미만에 15.0%, 50대에 9.6% 등의 분포를 보였다.

<표 3-7> 가구주-배우자 연령계층별 맞벌이상태

(단위: %)

	전체가구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	배우자
평 균 (세)	41.6	38.5	41.6	38.4	41.7	38.5
20대이하	9.1	18.9	7.9	15.0	9.6	20.7
30대	38.3	40.0	35.6	42.5	39.5	38.9
40대	29.3	25.1	35.9	31.7	26.3	22.3
50대	17.9	13.6	17.1	9.6	18.3	15.4
60대이상	5.5	2.3	3.5	1.3	6.3	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배우자의 연령에 따른 배우자 직업분포를 보면 관리전문직은 30대 및 40대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준전문직 및 사무직은 30대 미만 및 30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표 3-8 참조). 반면 서비스직 및 노무직/기타에서는 배우자가 30대 및 40대에 가장 높은 분포를 이루었으며 50대에 있어서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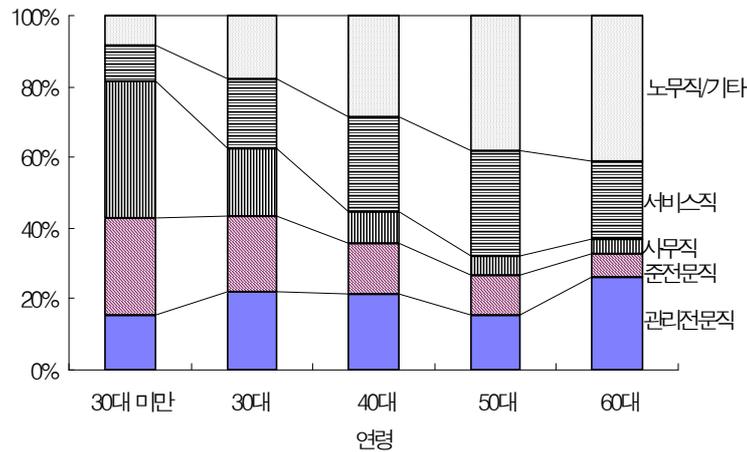
배우자연령에 따른 배우자 직업분포를 보면(그림 3-1 참조), 30세 미만에서는 사무직, 준전문직, 관리전문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배우자가 40대 및 50대에 와서는 30대에서의 직업분포와 완전히 거꾸로 노무직/기타, 서비스직,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의 순이었다.

<표 3-8>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연령계층별 직업분포

(단위: %)

	전 체	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20대이하	18.9	15.0	17.1	30.4	42.8	11.3	9.2	20.7
30대	40.0	42.5	49.2	47.5	43.2	43.8	39.5	38.9
40대	25.1	31.7	27.2	18.23	11.9	34.1	36.7	22.3
50대	13.6	9.6	5.2	3.6	1.9	9.8	12.7	15.4
60대이상	2.3	1.3	1.2	0.3	0.2	1.0	1.9	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3-1> 배우자의 연령계층별 직업분포



3.5 교육수준

조사대상가구의 교육수준을 보면 가구주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배우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표 3-9 참조).

맞벌이가구 분포를 보면 가구주 학력이 고등학교인 집단에서 4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그 다음은 중학교로 19.1%이었다. 대학교교육은 맞벌이가구의 17.8%를 차지하였다.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교육수준 또한 고등학교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40.7%의 분포를 보였고 다음이 중학교로 24.9%였다. 한편 대학교 이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평균에 비해 맞벌이가구는 줄고 비맞벌이가 늘었으며 전문대학 이하 교육수준에서 맞벌이가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배우자교육수준별 맞벌이상태를 보면(그림 3-2 참조), 초등 및 중학교의 저학력 집단과 대학교의 고학력집단에서 다같이 33~34%의 맞벌이비율을 보였다. 고등학교는 2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대학은 36.7%로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높은 맞벌이비율을 보였으며 대학원이상에서는 62.4%로 가장 높은 맞벌이비율을 나타냈다.

<표 3-9> 교육수준별 맞벌이상태

(단위: %)

교육수준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	배우자
초등이하	10.8	17.4	11.5	18.7	10.5	16.8
중학교	16.2	23.0	19.1	24.9	14.9	22.2
고등학교	45.5	46.3	42.4	40.7	46.9	48.7
전문대학	6.3	4.3	6.5	5.2	6.3	3.9
대학교	18.2	8.6	17.8	9.5	18.5	8.1
대학원이상	3.0	0.5	2.7	1.0	3.1	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3-2> 배우자교육수준별 맞벌이비율



맞벌이가구 배우자교육수준에 따른 직업분포를 보면 관리전문직은 대학교에 집중되어 있었고 준전문직은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교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표 3-10 참조). 사무직은 고등학교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서비스직 및 노무직/기타는 고등학교 이하 저학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 3-10> 맞벌이가구 배우자 교육수준과 직업

(단위: %)

	전 체	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초등이하	17.4	18.7	0.6	1.1	1.2	20.1	26.8	16.8
중학교	23.0	24.9	0.3	6.6	4.1	27.8	33.5	22.2
고등학교	46.3	40.7	7.0	37.3	65.8	46.3	36.4	48.7
전문대학	4.3	5.2	19.9	21.6	9.1	2.9	1.4	3.9
대학교	8.6	9.5	61.2	30.1	19.3	2.7	2.0	8.1
대학원이상	0.5	1.0	11.0	3.3	0.4	0.2	0.0	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 취업인 수

조사대상가구의 평균 취업인 수는 1.6명이었으며 취업인 수가 2인 이상인 가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3-11 참조). 이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평균 취업인 수는 2.2명이었다. 배우자 직업별 취업인 수를 보면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와 노무직/기타에서 3인 이상의 취업인원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비맞벌이가구의 평균 취업인 수는 1.3명이었다. 취업인원이 1인 이하인 가구는 72.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명 이상의 취업인원을 가지고 있는 가구도 27.7%가 되었다.

<표 3-11> 취업인 수에 따른 맞벌이상태

(단위: %)

(가구수)	전 체	맞벌이	관리 전문직	준전문 직	사무직	서비스 직	노무직/ 기타	비맞벌 이
평균 (인)	1.6	2.2	2.1	2.1	2.1	2.2	2.1	1.3
1인이하 (8,565)	50.1	0.0	0.0	0.0	0.0	0.0	0.0	72.3
2인 (7,140)	41.9	86.2	94.2	92.8	93.8	84.8	83.4	22.4
3인 (1,103)	6.5	11.1	4.6	5.0	5.4	11.7	13.9	4.4
4인이상 (248)	1.5	2.7	1.2	2.2	0.8	3.6	2.7	0.9
전 체 (17,0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7 직 업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직업을 보면 노무직/기타에 절반 이상이 종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직에 16.3%, 관리전문직에 10.5%, 기술공 및 준전문가에 10.3%, 사무직에 9.9%로 분포되어 있었다(표 3-12 참조). 맞벌이가구의 가구주직업을 보면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무직/기타, 사무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율이 높았다. 비맞벌이가구에서는 가구주 직업이 관리전문직과 서비스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직업분포를 보면 노무직/기타에 43.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비스직으로 33.8%를 차지하였다. 사무직에는 9.3%, 기술공 및 준전문가에 6.9%, 그리고 관리전문직에는 가장 낮은 6.3%의 분포를 보였다. 가구주의 직업분포와 비교해볼 때 배우자는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노무직/기타인 경우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두 사람 모두 관리전문직인 경우는 3.0%였다. 그 밖에 남편과 아내의 직업분포는 뚜렷한 상관관계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표 3-13참조).

<표 3-12> 가구주 및 배우자 직업에 따른 맞벌이상태

(단위:%)

	전체가구	맞벌이		비맞벌이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
관리전문직	10.5	8.8	6.3	11.3
준전문직	10.3	11.7	6.9	9.7
사무직	9.9	12.3	9.3	8.9
서비스직	16.3	11.1	33.8	18.6
노무직/기타	53	56.1	43.6	51.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표 3-13>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업별 분포

(단위: %)

가구주 배우자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	전 체
관리전문직	3.0	1.3	1.1	0.4	0.5	6.3
준전문직	1.3	1.9	1.1	0.9	1.7	6.9
사무직	1.3	2.1	2.6	1.0	2.5	9.3
서비스직	2.0	3.6	3.8	4.4	20.0	33.8
노무직/기타	1.3	2.8	3.7	4.3	31.5	43.6
전 체	8.8	11.7	12.3	11.1	56.1	100.0

3.8 입주형태

가구의 입주형태에 따른 분포를 보면 전체가구중 자가소유비율은 52.1%, 전세는 30.4%, 보증부 및 사글세, 월세는 14.3%, 무상주택 또는 사택거주는 3.2%를 차지하였다(표 3-14 참조).

이중 맞벌이가구의 입주형태를 보면 자가비율은 51.4%, 전세비율은 29.9%, 보증부 및 사글세·월세의 비율은 16.2%이었다. 비맞벌이가구는 자가가 52.4%, 전세가 30.7%, 보증부월세, 사글세 및 월세는 13.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맞벌이가구는 자가와 전세비율에서 비맞벌이보다 다소 낮고 월세의 비율에서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한편 배우자직업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입주형태를 보면 관리전문직에 있어서는 자가, 무상 또는 사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무직 및 준전문직에 있어서는 전세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서비스직에 있어서는 월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4> 입주형태에 따른 맞벌이상태

(단위: %)

(가구수)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	
자가 (8,883)	52.1	51.4	59.0	45.3	40.1	48.6	55.8	52.4
무상또는사택 (541)	3.2	2.7	5.5	3.0	2.7	2.6	2.2	3.4
전세 (5,191)	30.4	29.9	28.4	39.0	46.7	28.0	26.5	30.7
보증부월세 (1,688)	9.9	11.7	5.8	10.2	8.0	15.1	10.8	9.1
사글세·월세 (753)	4.4	4.5	1.2	2.8	2.5	5.7	4.8	4.4
전 체 (17,0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9 동거세대구분

전체 부부가구중 1세대로 이루어진 가구는 13.0%이었으며 2세대 가구는 75.9%, 3세대 가구는 11.1%이었다(표 3-15 참조). 맞벌이가구를 보면 전체가구에 비해 1세대 및 2세대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3세대 이상은 더 적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비맞벌이가구는 1, 2세대보다 3세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배우자직업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세대구분을 보면 관리전문직이 3세대 이상의 가구에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준전문직과 사무직은 1세대가구

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비스 및 노무직/기타는 2세대가구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5> 동거세대구분에 따른 맞벌이상태

(단위: %)

	전 체	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1세대	13.0	14.5	14.1	22.9	31.1	11.6	11.9	12.3
2세대	75.9	73.4	65.1	67.7	55.6	76.3	77.0	77.1
3세대이상	11.1	12.1	20.8	9.4	13.4	12.1	11.0	10.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10 취학자녀 존재여부

취학자녀 존재에 따른 조사대상가구의 분포를 보면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17.9%, 초등생자녀가 있는 가구는 28.6%, 중고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29.2%, 대학생자녀가 있는 가구는 8.3%이었다(표 3-16 참조).

취학자녀여부에 따른 맞벌이가구 분포를 보면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전체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적고 초등 및 중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전체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직업을 고려하여 보면 관리전문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에서 취학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비스직 및 노무직/기타에서는 초등생 및 중고생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학생자녀가 있는 가구의 배우자직업은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표 3-16> 취학자녀 존재여부에 따른 맞벌이상태

(단위: %)

	전 체	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관리 전문직	준전문 직	사무직	서비스 직	노무직/ 기타	
취학전자녀존재	17.9	15.4	22.0	18.8	19.1	15.1	13.3	19.0
초등생자녀존재	28.6	31.3	27.8	30.9	24.5	33.5	31.7	27.5
중고생자녀존재	29.2	37.3	22.9	22.1	16.3	41.7	42.7	25.6
대학생자녀존재	8.3	9.0	11.9	5.3	3.5	8.7	10.6	8.1

3.11 주택대출상환여부

전체 조사대상가구중 17.2%가 주택대출금에 상환을 하고 있었다(표 3-17 참조). 이는 맞벌이가구 중에서는 18.6%를 차지하고 비맞벌이가구중에서는 16.6%를 차지하였다. 이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로 구분하여 보면 근로자가구에서는 맞벌이, 비맞벌이 공히 19.6%가 주택대출상환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근로자외 가구에서는 맞벌이가 14.9%, 비맞벌이가 12.4%로 근로자가구에 비해 훨씬 낮은 주택대출상환비율을 보였다.

<표 3-17> 주택대출상환여부

(단위: %)

주택대출 상환여부	전체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있 음	17.2	18.6	16.6	19.6	19.6	14.9	12.4

3.12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특성 요약

본 연구의 분석대상가구는 17,056가구였으며, 이중 30.1%에 해당하는 5,213가구가 맞벌이, 69.9%인 11,843가구가 비맞벌이가구였다. 배우자연령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3,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배우자교육수준은 전문대 이상의 비율이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다소 높았다.

비맞벌이가구의 11.7%가 가구주가 관리전문직인이었으며, 이는 맞벌이가구의 8.8%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취업배우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노무직/기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이 서비스직이었다. 관리전문직은 6.3%, 준전문직 6.9%, 사무직이 9.3%였다. 맞벌이가구 중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19.0%로 맞벌이가구의 15.4%에 비해 높았으며, 반면 중고생자녀가 있는 비율은 맞벌이가구가 37.3%로 비맞벌이가구의 25.6%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맞벌이가구 중 3세대이상 기거하는 확대가족인 경우가 12.1%로 비맞벌이가구의 10.6%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3-18>은 앞서 논의한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의 가구특성별 비교 중 특기할 사항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3-18> 맞벌이여부별 가구특성 요약

특 성	구 분	계	맞벌이	비맞벌이
조사대상가구	가구수 (%)	17,056 (100.0%)	5,213 (30.1%)	11,843 (69.9%)
가구구분(%)	근로자가구	64.6	78.6	58.5
	사무직	(26.2)	(29.4)	(24.8)
	생산직	(38.4)	(49.1)	(33.7)
	근로자외가구	35.4	21.4	41.5
저축보유액(천원)	(평균)	19,051.2	18,140.7	19,458.6
부채보유액(천원)	(평균)	7,870.3	8,890.5	7,413.8
가구원수(명)	(평균)	3.8	3.8	3.8
배우자연령(세: %)	(평균)	38.5	38.4	38.5
	20대이하	18.9	15.0	20.7
	30대	40.0	42.5	38.9
	40대	25.1	31.7	22.3
	50대	13.6	9.6	15.4
	60대이상	2.3	1.3	2.8
배우자교육수준(%)	중졸이하	40.4	43.6	39.0
	고등학교	46.3	40.7	48.7
	전문대학	4.3	5.2	3.9
	대학교	8.6	9.5	8.1
	대학원이상	0.5	1.0	0.3
가구주/배우자직업 (%)	관리전문직	10.5	8.8/ 6.3	11.7
	준전문직	10.3	11.7/ 6.9	9.7
	사무직	9.9	12.3/ 9.3	8.9
	서비스직	16.3	11.1/33.8	18.6
	노무직/기타	53.0	56.1/43.6	51.6
미취학자녀유무(%)	있음	17.9	15.4	19.0
중고생자녀유무(%)	있음	29.2	37.3	25.6
거주지역(%)	서울	13.6	13.7	13.5
	광역시	40.8	39.5	41.4
	중소도시	45.6	46.7	45.2
동거세대구분(%)	확대가족	11.1	12.1	10.6
입주형태(%)	자가	52.1	51.4	52.4

IV. 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

4.1 맞벌이가구 결정모델

(1) 맞벌이가구 결정모델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가 맞벌이/비맞벌이로 이항값을 가짐에 따라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포함된 맞벌이가구의 관련변수는 관련 이론과 실증 연구들의 결과(김순미 & 김혜연, 1998; 방하남, 1996; 양승주, 1995 등)를 중심으로 하되, 앞 장에서 제시된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의 사회인구적 특성 비교분석 결과를 참조하였다.

전통적 노동공급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신들의 두 가지 임금인 요구임금과 시장임금간의 합리적 비교를 통하여 노동참여-불참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Becker, 1965; Mincer, 1969). 시장임금은 여성이 일을 할 경우 그 여성의 노동시간에 대한 시장가치이며, 요구임금은 가사일을 돌보는데 쓰는 그 여성의 가정에서의 시간적 가치이다. 여기에서 시장임금이 주관적 요구임금보다 높아야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여성의 시장임금은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생산성'변수들과 관련이 있으며, 반면 요구임금은 가사를 돌보는데 써야 하는 시간의 양과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여성의 노동공급은 배우자의 소득, 자산 등에 의해 소득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배우자의 취업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취업결정에 대해 소득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소득외 가구소득, 저축보유액, 가구주 직업 등과 시장임금과 관련이 높은 배우자교육수준을 분석모델에 포함하였다. 이 밖에 가구특성변수로 가구원 수, 동거세대구분, 미취학자녀여부, 중고생자녀여부를 포함하였는데 이들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수요와 관련이 있음에 따라 요구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이다. 거주지역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정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델에 포함하였다. 또한 추가적 소득수요의 욕구를 상승시킴으로써 주부취업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보유액, 입주형태를 포함하였다. 중고생자녀여부는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적 영향)에 교육비조달을 위한 추가소득의 수요 또한 야기시키는(+적 영향) 상반된 방향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소득계층의 분류

또한 맞벌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나누어서 맞벌이가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은 가구소득을 근거로 하여 하위 30%를 저소득층, 중간 50%를 중소득층, 상위 20%를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수는 5,448가구, 중소득계층은 8,419가구, 고소득계층은 3,189가구였다.

4.2 주부취업의 결정요인

전체 조사대상가구에 대하여 맞벌이가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에 포함된 대부분의 결정요인들이 맞벌이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경제적 요인변수의 경우 일반적 이론과는 상반된 방향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소득의 가구소득은 맞벌이가구가 될 확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저축보유액과 부채보유액의 증가는 맞벌이가 될 확률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 직업이 노무직/기타인 경우에 비해 관리전문직과 서비스직인 가구가 맞벌이일 가능성이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경제적 요인변수와 주부취업간의 관계가 다차원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중졸이하-배우자가구에 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에서 맞벌이가구가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성의 학력상승과 노동시장참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구원 수의 확대는 생활영위를 위한 소비필요분의 증가를 초래하며, 따라서 맞벌이가구가 될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 같다. 배우자의 연령은 20대이하 가구에 비해 3, 40대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주부의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의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맞벌이가 될 확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고생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교육비 지출의 필요가 증가함으로써 맞벌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생자녀의 경우 자녀양육을 시간사용보다는 추가소득에 의한 지출수요가 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확대가족인 경우 핵가족에 비해 맞벌이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근로자가구인 경우 맞벌이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맞벌이가구 결정요인: 로짓분석결과

독립변수	전체가구		
	회귀계수	표준편차	Probability
배우자소득외 가구소득	0.000029**	2.03E-6	0.0000
저축보유액	-1.43E-6**	6.196E-7	0.0000
부채보유액	-0.00001**	1.386E-6	0.0000
입주형태: 자가=1	-0.0500	0.0199	0.0120
가구주 직업:(노무직/기타)			
관리전문직	-0.1314**	0.0362	0.0015
준전문직	0.00434	0.0312	0.7051
사무직	0.0329	0.0305	0.2006
서비스직	-0.0911**	0.0289	0.0001
배우자 교육수준: (중졸)			
고등학교	-0.0826**	0.0227	0.0003
전문대학	0.1843**	0.0466	0.0001
대학교	0.1562**	0.0385	0.0000
대학원이상	0.6631**	0.1211	0.0000
가구원수	0.6312**	0.0808	0.0000
(가구원수)제곱	-0.0661**	0.00963	0.0000
배우자 연령: (20대이하)			
30대	0.3256**	0.0277	0.0000
40대	0.3877**	0.0336	0.0000
50대	0.00604	0.0392	0.8776
60대이상	-0.2172**	0.0748	0.0037
미취학자녀유무: 있음=1	-0.0482	0.0271	0.0758
중고생자녀유무: 있음=1	0.2692**	0.0246	0.0000
거주지역: (중소도시)			
서울	0.0294	0.0276	0.2865
광역시	-0.0281	0.0190	0.1393
동거세대구분: 확대가족=1	0.1777**	0.0343	0.0000
가구구분: 근로자=1	0.4787**	0.0219	0.0000
상수항	-1.9080**	0.2522	0.0000
Chi-square	19213.26**		

* = $p \leq .05$, ** = $p \leq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4-2>은 소득계층별로 맞벌이가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예상한대로 소득계층에 따라 맞벌이결정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 변수들이 다수 있었다. 배우자외 가구소득은 전 소득계층에서 맞벌이가구가 될 확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원종구(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전 소득계층에 대해 저축보유액이 많을수록 맞벌이가구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는 저축보유액이 금융자산으로서의 부적 소득효과를 주부취업결정에 미친다기 보다는, 주부가 취업을 함에 따라 가계저축보유액이 높아지는 사후적 관계로 설명되어야 할 것 같다. 가구주 직업의 효과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중소득층에서는 노무직/기타직종에 비해 남편이 관리전문직이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맞벌이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교육수준의 효과를 살펴보면 중, 고소득계층에 있어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은 중졸에 비해 맞벌이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모든 소득집단에서 맞벌이가구가 될 확률을 높인다. 배우자연령변수의 경우 저, 중소득층에서는 20대이하에 비해 3, 4대에서 맞벌이가 많았으나 고소득층에서는 20대이하 가구의 맞벌이 확률이 가장 높았다. 중고생자녀의 존재는 저소득 및 중소득층에서 맞벌이확률을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 과외비 등의 교육비지출증가에 따른 주부취업증가를 시사한다. 거주지역 및 동거세대구분은 중소득계층에서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서울·경기 지역이 기타지역에 비해 그리고 자가가구보다는 비자가가구에서 맞벌이가 될 확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 결정요인: 로짓분석결과

독립변수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회귀계수	Prob.	회귀계수	Prob.	회귀계수	Prob.
배우자소득외 가구소득	0.000144**	0.0000	5.594E-6**	0.0000	0.000059**	0.0000
저축보유액	0.00001**	0.0033	1.586E-6**	0.0000	5.142E-6**	0.0000
부채보유액	-0.00001*	0.0329	2.622E-6	0.0656	-8.32E-6**	0.0000
입주형태: (자가=1)	-0.0181*	0.6716	-0.1540**	0.0000	-0.2216**	0.0000
가구주 직업:(노무직/기타)						
관리전문직	-0.00376	0.9775	-0.2434**	0.0000	-0.1415	0.0352
준전문직	0.0387	0.6444	-0.0509	0.2622	-0.00769	0.9177
사무직	0.0759	0.3319	-0.0819	0.0587	0.0424	0.5959
서비스직	0.1076	0.0682	-0.1711**	0.0001	-0.0105	0.8790
배우자 교육수준: (중졸)						
고등학교	-0.0934*	0.0495	-0.1510**	0.0000	0.00365	0.9495
전문대학	-0.0472	0.6892	0.0334	0.6389	0.3703**	0.0006
대학교	-0.3002*	0.0157	-0.1146	0.0690	0.2641**	0.0007
대학원이상	-0.3387	0.3425	0.6777**	0.0050	1.0075**	0.0000
가구원수 (가구원수)제곱	0.5628**	0.0029	0.3307*	0.0137	1.0291**	0.0004
배우자연령: (20대이하)						
30대	0.3955**	0.0000	0.3099**	0.0000	-0.0942	0.3064
40대	0.4793**	0.0000	0.2961**	0.0000	-0.0791	0.4339
50대	-0.0463	0.5607	-0.0933	0.1421	-0.4777**	0.0000
60대이상	-0.1095	0.3262	-0.5972**	0.0001	-0.6591**	0.0030
미취학자녀유무: (있음=1)	-0.0587	0.3415	-0.0420	0.2933	0.0554	0.4172
중고생자녀유무: (있음=1)	0.3375**	0.0000	0.2659**	0.0000	0.1080	0.0534
거주지역: (중소도시)						
서울	-0.0680	0.3300	0.1025*	0.0135	-0.1712*	0.0057
광역시	0.0697	0.0753	-0.0159	0.5852	-0.1575**	0.0010
동거세대구분: (확대=1)	-0.0440	0.6273	0.2230**	0.0000	0.1038	0.1469
가구구분: (근로자=1)	0.7422**	0.0000	0.5067**	0.0000	0.6507**	0.0000
상수항	-0.7905	0.1729	-3.9771**	0.0000	-3.6316**	0.0000
Chi-square	4603.35		8448.35**		3269.73**	

* = p≤.05, **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V. 가계경제구조 분석: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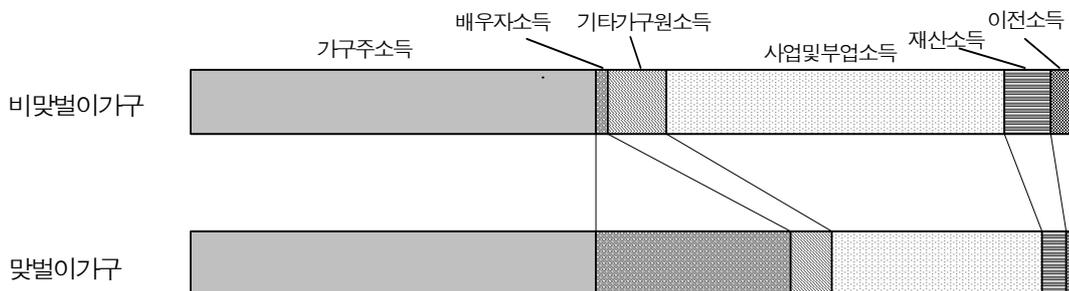
5.1 맞벌이상태에 따른 소득구조

맞벌이가구의 연간소득은 30,294.1천원으로 전체가계의 27,431.3천원에 비해서 10.4%, 비맞벌이가구의 26,150.3천원에 비해서는 15.8%가 많았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소득은 22,027.6천원으로 가구소득의 72.7%에 해당되는 반면, 비맞벌이가구의 근로소득은 14,098.4천원으로 가구소득의 53.9%에 불과하였다. 비맞벌이가구의 경우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포함하는 비근로소득의 규모 및 비중이 맞벌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5-1, 표 5-1 참조).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소득은 9,256.9천원으로 전체가구소득의 30.6%에 해당되며, 가구주소득에 대한 배우자소득은 절반(50.1%)정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소득이라는 추가소득을 통하여 가구소득을 44.0%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2 참조).

근로자와 근로자외가구 간의 맞벌이 배우자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근로자가구가 9,119.3천원으로 근로자외가구의 9,744.7천원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자가구가 31.2%로 근로자외가구의 2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구의 배우자소득은 가구주소득의 51.5%수준으로 근로자외가구의 46.2%에 비해 높았다.

<그림 5-1> 맞벌이상태에 따른 소득구조



<표 5-1>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소득구조

	전체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액 수 (천 원)						
연간소득	27431.3	30294.1	26150.3	29197.9	23529.2	34178.6	29795.0
○근로소득	16549.6	22027.6	14098.4	26045.2	21610.2	7790.0	3653.4
가구주	12601.2	13904.2	12018.1	17583.1	19560.7	867.0	1530.2
배우자	2302.3	6696.7	335.9	7025.7	343.2	5531.0	325.7
기타가구원	1646.2	1426.7	1744.4	1436.5	1706.2	1392.1	1797.4
○사업및부업소득	9140.4	7220.0	9999.7	2302.2	489.5	24647.8	23223.4
가구주	8055.4	4554.9	9621.8	130.6	128.1	20233.6	22822.6
배우자	928.9	2560.2	199.0	2093.6	187.2	4213.7	215.4
기타가구원	156.0	104.9	178.9	78.0	174.2	200.4	185.4
○재산소득	1200.4	809.6	1375.3	600.3	991.0	1551.3	1909.8
○이전소득	540.9	236.8	676.9	250.2	438.5	189.5	1008.5
	구 성 비 (%)						
연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60.3	72.7	53.9	89.2	91.8	22.8	12.3
가구주	45.9	45.9	46.0	60.2	83.1	2.5	5.1
배우자	8.4	22.1	1.3	24.1	1.5	16.2	1.1
기타가구원	6.0	4.7	6.7	4.9	7.3	4.1	6.0
○사업및부업소득	33.3	23.8	38.2	7.9	2.1	72.1	77.9
가구주	29.4	15.0	36.8	0.4	0.5	59.2	76.6
배우자	3.4	8.5	0.8	7.2	0.8	12.3	0.7
기타가구원	0.6	0.3	0.7	0.3	0.7	0.6	0.6
○재산소득	4.4	2.7	5.3	2.1	4.2	4.5	6.4
○이전소득	2.0	0.8	2.6	0.9	1.9	0.6	3.4

<표 5-2>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소득 특성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배우자소득	9256.9	9119.3	9744.7
(배우자소득/연간소득)×100	30.6	31.2	28.5
(배우자소득/가구주소득)×100	50.1	51.5	46.2
(배우자소득/기타소득)×100	44.0	45.4	39.9

(1) 배우자직업별

<표 5-3>는 맞벌이가구 중 배우자직업에 따른 소득구조를 나타낸다. 집단에 따라 현격한 소득격차를 보였으며, 소득원천에 따른 구성비 역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관리전문직인 경우 가구의 연간소득은 49,735.1천원이었고, 반면 노무직/기타인 경우는 26,236.8 천원으로 관리전문직 가구소득의 52.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상당부분 배우자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20,566.5천원이었으며, 사무직은 12,424.1천원, 준전문직은 11,982.5천원, 서비스직은 8,557.7천원, 노무직/기타는 7,018.1천원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관리전문직-배우자의 소득은 총가구소득의 41.4%를 점하였으며, 이들의 소득수준은 가구주소득의 7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가 사무직인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에 의한 근로소득비중이 87.0%로 고려 집단 중 가장 높았으나 비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에 총가구소득의 수치는 관리전문직과 준전문직-배우자가구에 비해 낮았다. 관리전문직-배우자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수준에 있어서도 5개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5-3>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직업별 소득구조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	
	(천원)	(%)								
연간소득	49735.1	100.0	35276.2	100.0	34800.6	100.0	29620.2	100.0	26236.8	100.0
○근로소득	36430.3	73.2	26236.1	74.4	30291.7	87.0	17376.6	58.7	20768.3	79.2
가구주	19795.4	39.8	16567.4	47.0	17847.5	51.3	12161.8	41.1	12984.4	49.5
배우자	16031.5	32.2	8934.4	25.3	11997.5	34.5	3543.3	12.0	6075.1	23.2
기타가구원	603.4	1.2	734.4	2.1	446.7	1.3	1671.4	5.6	1708.7	6.5
○사업및부업소득	11422.1	23.0	7176.0	20.3	3705.4	10.6	11080.8	37.4	4698.5	17.9
가구주	6795.0	13.7	3934.2	11.2	3192.8	9.2	5959.3	20.1	3660.6	14.0
배우자	4535.0	9.1	3048.1	8.6	426.6	1.2	5014.4	16.9	943.0	3.6
기타가구원	92.1	0.2	193.6	0.5	86.0	0.2	107.1	0.4	94.8	0.4
○재산소득	1672.8	3.4	1516.5	4.3	598.2	1.7	885.0	3.0	570.0	2.2
○이전소득	209.8	0.4	347.6	1.0	205.3	0.6	277.8	0.9	200.0	0.8

<표 5-4>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직업별 배우자소득 특성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
배우자소득	20566.5	11982.5	12424.1	8557.7	7018.1
(배우자소득/연간소득)×100	41.4	34.0	35.7	28.9	26.7
(배우자소득/가구주소득)×100	77.3	58.4	59.0	47.2	42.2
(배우자소득/기타소득)×100	70.5	51.4	55.5	40.6	36.5

(2) 소득계층별

<표 5-5>는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구조를 나타낸다. 소득원천별로 소득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저소득층은 모든 소득원천에 대해 소득수준이 가장 낮았다. 저소득-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소득이 가구소득의 30.8%를 차지하였다(표 5-6 참조). 중소득층을 살펴보면 맞벌이와 비맞벌이집단간 가구주 근로소득의 규모는 모두 13,000천원대로 유사하였으나 맞벌이집단의 경우 배우자소득이 있는 반면 비맞벌이집단은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맞벌이와 비맞벌이집단간의 소득구조가 보다 큰 대비를 보였는데 고소득-맞벌이가구의 경우 가구주 총소득은 27,047.1천원이고 배우자총소득은 16,764.5천원으로 배우자소득은 가구주소득의 62.0%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비율은 세 소득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고소득-비맞벌이가구의 경우 사업 및 부업소득이 가구소득의 51.5%를 차지함으로써 이들 집단에 배우자가 고소득자영업자 및 자유직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재산소득 또한 4,657.1천원으로 가구소득의 9.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5-5> 소득계층별 소득구조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액 수 (천 원)					
연간소득	15043.7	14080.0	26553.5	25861.9	50057.8	50858.5
○근로소득	12200.4	9637.1	20353.4	15532.2	33078.0	19175.9
가구주	8167.0	9037.7	13566.3	13493.7	18891.4	14047.6
배우자	3799.0	267.1	5701.1	401.9	11104.1	298.4
기타가구원	234.4	332.3	1086.0	1636.6	3082.5	4830.0
○사업및부업소득	2536.3	3360.3	5631.0	8858.0	14297.7	26177.9
가구주	1643.9	3256.1	3548.4	8621.3	8155.7	25635.5
배우자	829.3	122.7	2039.2	189.2	5660.4	324.2
기타가구원	63.1	18.5	43.4	47.5	481.6	218.2
○재산소득	121.2	398.2	369.8	865.1	2322.2	4657.1
○이전소득	185.8	684.4	199.4	606.5	359.9	847.5
	구 성 비 (%)					
연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81.1	68.4	76.7	60.1	66.1	37.7
가구주	54.3	64.2	51.1	52.2	37.7	27.6
배우자	25.3	1.9	21.5	1.6	22.2	0.6
기타가구원	1.6	2.4	4.1	6.3	6.2	9.5
○사업및부업소득	16.9	23.9	21.2	34.3	28.6	51.5
가구주	10.9	23.1	13.4	33.3	16.3	50.4
배우자	5.5	0.9	7.7	0.7	11.3	0.6
기타가구원	0.4	0.1	0.2	0.2	1.0	0.4
○재산소득	0.8	2.8	1.4	3.3	4.6	9.2
○이전소득	1.2	4.9	0.8	2.3	0.7	1.7

<표 5-6> 맞벌이가구의 소득계층별 배우자소득 특성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배우자소득	4628.3	7740.3	16764.5
(배우자소득/연간소득)×100	30.8	29.1	33.5
(배우자소득/가구주소득)×100	47.2	45.2	62.0
(배우자소득/기타소득)×100	44.4	41.1	50.4

(3) 연령계층별

<표 5-7>은 맞벌이가구의 연령계층에 따른 소득구조를 나타낸다. 가구소득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많아지다가 40대에 31,781.5천원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근로소득의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서 20대 이하의 경우 81.7%에 이르렀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배우자소득의 비중 역시 20대이하의 가구에서 34.6%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 집단의 배우자소득은 가구주소득의 57.0%로 전 연령계층 중 가장 높았다(표 5-8 참조).

20대이하 가구의 배우자소득은 평균 9,706.9천원으로 전 연령계층 중 가장 큰 수치를 보인 반면, 가구주근로소득은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이후 사업 및 부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시기에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5-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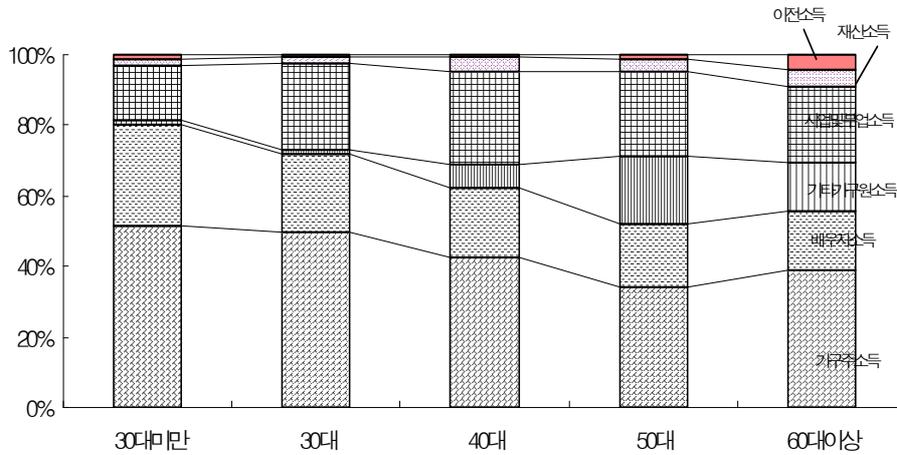
<표 5-7> 맞벌이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천원)	(%)								
연간소득	28045.2	100.0	30162.1	100.0	31781.5	100.0	31514.7	100.0	19137.0	100.0
○근로소득	22908.4	81.7	21980.5	72.9	21875.5	68.8	22394.6	71.1	13251.7	69.2
가구주	14437.5	51.5	14955.3	49.6	13459.2	42.3	10656.2	33.8	7492.3	39.2
배우자	8057.7	28.7	6788.2	22.5	6304.5	19.8	5672.2	18.0	3218.5	16.8
기타가구원	413.2	1.5	237.1	0.8	2111.8	6.6	6066.2	19.2	2540.8	13.3
○사업및부업소득	4267.8	15.2	7500.3	24.9	8431.9	26.5	7620.7	24.2	4177.6	21.8
가구주	2585.2	9.2	4874.2	16.2	5247.5	16.5	4629.2	14.7	2396.8	12.5
배우자	1649.2	5.9	2580.4	8.6	3069.9	9.7	2539.0	8.1	1630.7	8.5
기타가구원	33.3	0.1	45.6	0.2	114.5	0.4	452.4	1.4	150.2	0.8
○재산소득	597.0	2.1	495.9	1.6	1236.5	3.9	1178.1	3.7	892.9	4.7
○이전소득	272.0	1.0	185.4	0.6	237.6	0.7	321.2	1.0	814.8	4.3

<표 5-8> 맞벌이가구의 연령계층별 배우자소득 특성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배우자소득	9706.9	9368.6	9374.4	8211.2	4849.2
(배우자소득/연간소득)×100	34.6	31.1	29.5	26.1	25.3
(배우자소득/가구주소득)×100	57.0	47.2	50.1	53.7	49.0
(배우자소득/기타소득)×100	52.9	45.1	41.8	35.2	33.9

<그림 5-2> 맞벌이가구 연령계층별 소득구성



5.2 소득분위별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분포

<표 5-9>는 소득10분위에 따른 맞벌이 및 비맞벌이가구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배우자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맞벌이가구는 하위4분위에서 각 분위당 평균수치인 10%를 상회함으로써 보다 낮은 소득분포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소득을 합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맞벌이가구의 4.9%만이 최하위분위에 속하며 상위4분위에 맞벌이가구의 48%가 속하는 등 배우자소득을 통하여 소득계층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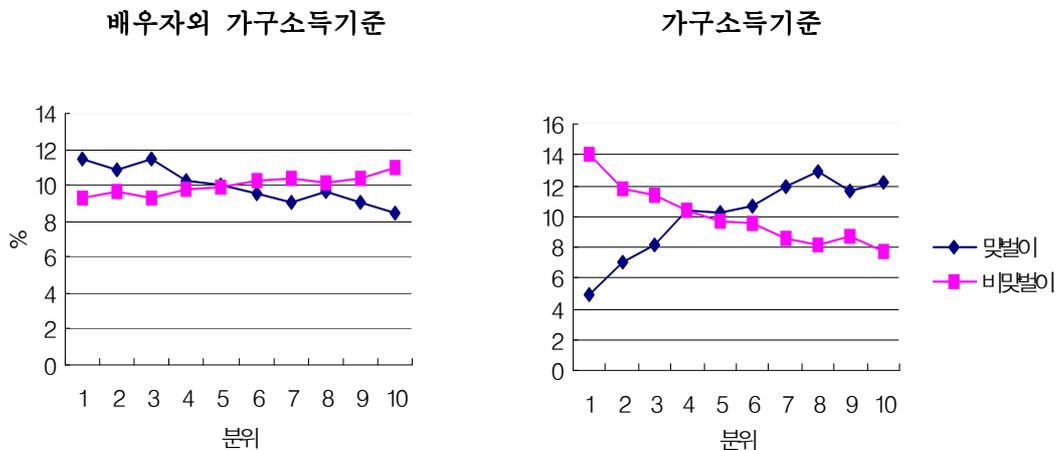
배우자소득을 추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러한 가구소득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림 5-3>을 통하여 명확히 볼 수 있다. 배우자소득을 추가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때의 가구소득(왼쪽 그림)과 비교해볼 때 맞벌이와 비맞벌이는 하위 소득분위에서와 상위소득분위에서 그 격차가 뚜렷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격차는 하위분위에서의 맞벌이가구 감소와 상위분위에서의 맞벌이가구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써 배우자소득으로 인한 맞벌이가구의 소득분위상의 이동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표 5-9> 소득10분위 분류에 따른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분포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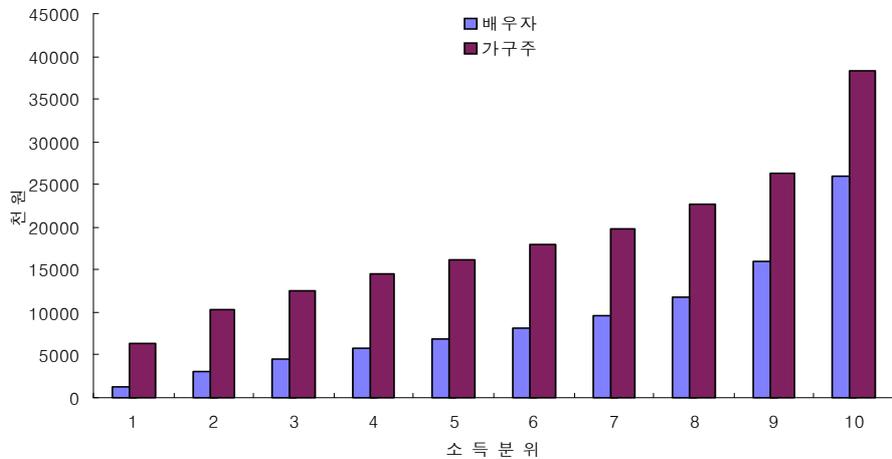
소득 10분위	배우자소득외 가구소득 기준				총가구소득 기준			
	소득범위	평균	맞벌이	비맞벌이	소득범위	평균	맞벌이	비맞벌이
I	~11688	8471.3	11.5	9.3	~13200	9985.7	4.9	14.0
II	~14748	13255.4	10.9	9.6	~16596	15001.1	7.0	11.8
III	~17325	15990.2	11.5	9.3	~19162	17889.3	8.2	11.4
IV	~19296	18307.7	10.3	9.8	~21600	20365.2	10.4	10.4
V	~21956	20593.6	10.0	9.9	~24100	23043.9	10.2	9.7
VI	~24500	23331.7	9.5	10.2	~27000	25523.4	10.7	9.6
VII	~28004	26128.8	9.0	10.4	~30444	28779.5	11.9	8.5
VIII	~33000	30317.7	9.7	10.1	~35997	32987.5	12.9	8.1
IX	~41300	36685.3	9.1	10.4	~44412	39428.6	11.6	8.7
X	41301~	58524.1	8.5	11.0	44413~	61765.4	12.2	7.7
전 체		25123.0	100.0	100.0		27431.3	100.0	100.0

<그림 5-3> 소득10분위 분류에 따른 가구분포



다음으로는 맞벌이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소득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림 5-4>는 가구주 및 배우자 소득 10분위를 비교하고 있다. 전 분위에 걸쳐 가구주소득이 배우자소득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하위 분위에서 더욱 커지고 8분위 이상의 상위분위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단위시간당 임금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하위분위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간의 근로시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면도 크다 할 수 있다.

<그림 5-4> 맞벌이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소득10분위



<표 5-10>는 가구주 및 배우자의 소득 5분위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 및 배우자의 각 소득분위에 있어 확률이 동일할 경우 맞벌이부부는 각 셀당 4%씩 분포하게 된다. 그러나 각 셀의 값은 1.9%에서 7.0%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같은 소득분위끼리 연결된 맞벌이부부는 전체의 약 4분의 1(23.9%)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가구주에 비해 배우자가 더 높은 분위에 있는 맞벌이가 42.2%이고 가구주에 비해 배우자가 더 낮은 분위에 있는 가구는 34.0%를 나타냈다. 가구주 및 배우자가 모두 최하위 분위에 있는 부부는 4.5%였고 부부 모두 최상위 분위에 있는 가구는 7.0%였다.

<표 5-10> 가구주 및 배우자의 소득 5분위별 분포(N=5,075)

배우자 \ 가구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4.5	3.8	4.0	4.5	3.6
2분위	5.9	3.9	4.0	3.2	2.6
3분위	5.1	5.3	4.1	3.5	2.3
4분위	4.1	4.3	4.6	4.4	2.5
5분위	1.9	2.8	3.1	5.1	7.0

5.3 배우자소득의 가구주소득에 대한 비율

<표 5-11>에는 배우자소득의 가구주소득에 대한 비율이 여러 가지 특성별로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소득은 가구주소득의 평균 60.1%를 점하고 있었다. 배우자연령별 배우자소득의 가구주소득 비율을 보면 결혼 및 자녀양육이 집중되는 30대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20대 및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직업별로 가구주소득에 대한 비율을 보면, 관리전문직에서는 89.2%의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노무직/기타에서는 5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전문직 및 사무직에서도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배우자소득은 가구주소득에 대해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에서 70.9% 및 67.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득층에서는 53.3%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구구분별로 가구주소득에 대한 배우자소득의 비율을 보면, 근로자가구보다는 근로자외가구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근로자외가구의 배우자소득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근로자외가구의 가구주소득(근로소득)이 근로자가구의 그것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표 5-1 참조).

<표 5-11> 특성별 배우자소득의 가구주소득에 대한 비율*

<배우자연령별>

전체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60.1	65.5	56.2	60.9	66.4	58.5

<배우자직업별>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
89.2	68.7	68.6	60.0	52.9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89.2	68.7	52.9

*(배우자소득/가구주소득)*100

5.4 소득구조 분석 요약

맞벌이가구의 연간소득은 30,294.1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26,105.3천원에 비해 15.8%가 많았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평균배우자소득이 9,256.9천원으로 이는 전체가구소득의 30.6%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관리전문직인 경우 타직업의 배우자에 비해 배우자소득이 가장 많고 전체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4%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맞벌이가구의 경우 특히 배우자의 기여폭이 높았다. 이들 집단은 배우자소득이 가구주소득의 62.0%로 가장 높았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경우 젊을수록 총가구소득수준은 낮으나 배우자에 의한 소득기여도는 높았다.

맞벌이가구의 4.9%만이 최하위소득집단 10%에 속하는 반면 상위40%에 속하는 가구는 4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소득을 통해 가구소득 상태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VI. 가계경제구조 분석: 소비지출

6.1 소비지출규모와 구조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행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 조사자료의 9대 대분류 비목 외에 배우자취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비목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표 6-1참조). 맞벌이가구의 월평균가계지출은 1,657,956.6원이었으며, 비맞벌이가구는 이보다 54,657.3원(3.4%)이 더 적은 1,603,299.3원이었다.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지출의 경우 맞벌이가구는 1,434,014.4원으로 비맞벌이의 1,412,521.8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표 6-2(1) 참조).

지출비목별로 비교해보면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외식비, 보육료, 피복 및 신발, 교육비, 공공교통비, 그리고 비소비지출의 지급이자에서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1만원이상의 지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육료의 경우 맞벌이가구는 월평균 12,722.1원을 지출한 반면, 비맞벌이가구는 1,840.6원을 지출하여 비교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6-2(2)>는 지출항목별로 비맞벌이에 대한 맞벌이가구의 지출차이율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출이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591.2%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사사용인급료, 지급이자, 공공교통, 월세, 사회보장분담금의 순이었다.

반면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로 지출이 줄어든 비목은 기타주거비, 가구·가사용품, 보건의료, 장식구 등으로 소비지출을 위하여 시간투자가 필요한 지출비목들이므로 나타났다.

<표 6-1> 소비지출비목별 월평균지출규모 및 구성비

통계청 대분류	분석한 세부비목	비목의 정의
가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외 식	식사대, 음주대, 기타외식
주거	월 세	
	기타주거비	주택설비수리, 기타주거
광열·수도	광열·수도	수도료, 전기료, 연료
가구·가사용품	가구·가사용품	일반가구, 가정용기구,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등
	가사사용인급료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탁아비
피복 및 신발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교육	납입금, 보충교육, 교재비 등
교양오락	교양오락	신문도서, 교양오락용품기구, 교양오락서비스
교통통신	공공교통	버스, 택시비 등
	개인교통	자동차구입, 연료비, 보험료
	통 신	전화료, 우편료, 정보통신이용료 등
기타소비지출	이미용서비스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장신구	장신구용품, 핸드백, 가방, 우산, 손목시계 등
	경조비	
비소비지출	조 세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사회보장분담금	의료보험료, 퇴직기여금, 공적연금 등
	지급이자	
	송금 및 보조	타가구를 위한 생활보조금
저 축	저 축	가구소득-가계지출

<표 6-2(1)>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단위: 원)

	전체	맞벌이①	비맞벌이②	①-②	(①-②)/② ×100
가계지출	1620196.1	1657956.6	1603299.3	54657.3	3.4
○소비지출	1419166.0	1434014.4	1412521.8	21492.6	1.5
식료품	386883.0	383017.9	388612.6	3865.1	1.0
(외식)	121344.2	130324.2	117325.8	12998.4	11.1
주거비	54468.3	50006.5	56464.9	-6458.4	-1.4
(월세)	20057.0	23659.0	18445.1	5213.9	28.3
(기타주거비)	34411.4	26347.5	38019.7	-11672.2	-30.7
광열수도	66473.3	66023.0	66674.9	-651.9	1.0
가구·가사용품	64274.6	61423.2	65550.6	-4127.4	6.3
(가구가사용품)	52874.6	41773.1	57842.2	-16069.1	-27.8
(가사사용인급료)	2424.9	3566.7	1914.0	1652.7	86.3
(보육료)	5204.5	12722.1	1840.6	10881.5	591.2
피복및신발	119739.0	127777.2	116142.1	11635.1	10.0
보건의료	66835.2	59620.5	70063.6	-10443.1	-14.9
교육	135911.3	146895.0	130996.4	15898.6	12.1
교양오락	66067.3	69613.0	64480.7	5132.3	8.0
교통통신	171778.4	184169.7	166233.6	17936.1	10.8
(공공교통)	39848.2	47235.5	36542.5	10693	29.3
(개인교통)	98267.4	103555.3	95901.2	7654.1	8.0
(통신)	33662.8	33378.8	33789.8	-411	1.2
기타소비지출	286735.5	285468.4	287302.5	-1834.1	-0.6
(이미용서비스)	21990.4	22415.8	21800.1	615.7	2.8
(장신구)	10570.6	9510.9	11044.8	-1533.9	-13.9
(경조비)	67706.9	69649.7	66837.5	2812.2	4.2
○비소비지출	201030.1	223942.2	190777.5	33164.7	17.4
조세	58163.1	53112.4	60423.2	-7310.8	12.1
사회보장분담금	41783.0	47908.0	39042.2	8865.8	22.7
지급이자	30557.4	38078.8	27191.8	10887.0	40.0
송금 및 보조	63269.1	68873.8	60761.1	8112.7	13.4

<표 6-2(2)> 비맞벌이에 대한 맞벌이가구의 지출규모 변화율 순위

순위	증가 지출비목		감소 지출비목	
	지출비목	%	지출비목	%
1	보육료	591.2	기타주거비	-30.7
2	가사사용인급료	86.3	가구·가사용품	-27.8
3	지급이자	40.0	보건의료	-14.9
4	공공교통	29.3	장신구	-13.9
5	월세	28.3	조세	-12.1
6	사회보장분담금	22.7		
7	송금 및 보조	13.4		
8	교육	12.1		
9	외식	11.1		
10	피복 및 신발	10.0		

<표 6-2(3)>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

(단위: %)

	전체	맞벌이①	비맞벌이②	①-②
가계지출	100.0	100.0	100.0	
○소비지출	87.6 (100.0)	86.5 (100.0)	88.1 (100.0)	-1.6
식료품	(27.3)	(26.7)	(27.5)	(-0.8)
(외식)	(8.6)	(9.1)	(8.3)	(0.8)
주거비	(3.8)	(3.5)	(4.0)	(-0.5)
(월세)	(1.4)	(1.6)	(1.3)	(0.3)
(기타주거비)	(2.4)	(1.8)	(2.7)	(-0.9)
광열수도	(4.7)	(4.6)	(4.7)	(-0.1)
가구·가사용품	(4.5)	(4.3)	(4.6)	(-0.3)
(가구가사용품)	(3.7)	(2.9)	(4.1)	(-1.2)
(가사사용인급료)	(0.2)	(0.2)	(0.1)	(0.1)
(보육료)	(0.4)	(0.9)	(0.1)	(0.8)
피복및신발	(8.4)	(8.9)	(8.2)	(0.7)
보건의료	(4.7)	(4.2)	(5.0)	(-0.8)
교육	(9.6)	(10.2)	(9.3)	(0.9)
교양오락	(4.7)	(4.8)	(4.6)	(0.2)
교통통신	(12.1)	(12.8)	(11.8)	(1.0)
(공공교통)	(2.8)	(3.3)	(2.6)	(0.7)
(개인교통)	(6.9)	(7.2)	(6.8)	(0.4)
(통신)	(2.4)	(2.3)	(2.4)	(-0.1)
기타소비지출	(20.2)	(19.9)	(20.3)	(-0.4)
(이미용서비스)	(1.5)	(1.6)	(1.5)	(0.1)
(장신구)	(0.7)	(0.7)	(0.8)	(-0.1)
(경조비)	(4.8)	(4.9)	(4.7)	(0.2)
○비소비지출	12.4 (100.0)	13.5 (100.0)	11.9 (100.0)	1.6 (100.0)
조세	(28.9)	(23.7)	(31.7)	(-8.0)
사회보장분담금	(20.8)	(21.4)	(20.5)	(0.9)
지급이자	(15.2)	(17.0)	(14.3)	(32.8)
송금 및 보조	(31.5)	(30.8)	(31.8)	(-1.0)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간의 구성비를 비교해보면(표 6-2(3) 참조), 맞벌이가구는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커서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6.5%로 비맞벌이가구의 88.1%에 비해 다소 낮았다. 맞벌이가구의 외식비 비중은 9.1%로 비맞벌이가구의 8.3%에 비해 0.8%가 많았다. 맞벌이가구의 보육료지출은 전소비지출의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복 및 신발비의 지출구성비도 8.9%로 7.9%인 비맞벌이가구와 격차를 보였다. 맞벌이가구의 교육비지출은 10.2%로 9.3%인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0.9%가 높았다. 이 밖에 공공교통 및 개인교통부분의 지출구성비에 있어서도 맞벌이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비맞벌이에 비해서 맞벌이가구가 낮은 지출구성비를 보이는 부분으로는 주거비와 보건의료비 등이었다.

한편 비소비지출은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에 비해 17.5%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세부 비목별로 보면 지급이자 및 사회보장분담금에서 각각 40.0% 및 22.7%를 맞벌이가 더 지출하고 있었다.

(1) 배우자직업별

배우자직업에 따른 소비지출규모는 <표 6-3(1)>에, 소비지출구성비는 <표 6-3(2)>에 나타나 있다. 배우자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가계지출이 2,541,996.7원으로 가장 높은 집단이었으며 그 다음이 사무직, 준전문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의 순이었다. 관리전문직의 경우 월평균 보육료가 58,738.5원, 가사사용인급료가 30,263.6원을 지출하여 특히 취업관련 지출이 큼을 나타냈다. 이들은 개인교통비로도 월평균 218,507.3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소비지출의 10.8%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두 번째로 가계지출이 많은 사무직의 경우 외식비지출비중이 10%를 상회하는 167,872.1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육료로도 36,844.1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집단은 이미용서비스, 피복 및 신발지출에 있어 각기 소비지출의 1.5%, 10.0%를 지출하였는데 이 두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구성비는 다섯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배우자가 서비스직과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월세지출이 많았으며, 교육비지출이 각기 월평균 157,112.2원, 149,150.7원으로 타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는 이들 집단이 교육비지출요구가 많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두 집단은 교육비의 지출구성비가 11%대를 상회한다. 관리전문직과 준전문직가구가 개인교통의 지출비중이 10%대인 반면,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가구 등은 공공교통비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모두 소비지출의 3%대를 나타냈다.

<표 6-3(1)>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직업별 소비지출규모

(단위: 원)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가계지출	2541996.7	1844650.8	1915606.1	1606870.7	1482377.0
○ 소비지출	2042692.3	1585562.4	1606653.8	1393040.2	1314612.6
식료품	471708.6	393189.6	397156.9	386291.0	363528.8
(외식)	190861.5	165399.5	167872.1	127771.1	109223.2
주거비	51426.1	42772.7	45180.2	56862.7	47207.0
(월세)	6942.9	17090.4	18003.1	31754.1	22526.3
(기타주거비)	44483.2	25682.3	27177.1	25108.6	24680.7
광열수도	78071.7	56637.0	55066.4	70142.4	65550.4
가구·가사용품	150108.4	68322.9	104336.1	44843.0	50008.3
(가구가사용품)	55974.4	33576.8	58580.6	34370.2	42569.0
(가사사용인급료)	30263.6	7799.5	5539.1	1153.6	495.9
(보육료)	58738.5	22935.3	36844.1	5995.7	3906.9
피복및신발	201997.1	149989.1	169297.5	126287.5	105239.4
보건의료	77012.2	63351.5	64776.4	59335.9	55616.4
교육	149679.3	130922.1	115727.4	157112.2	149150.7
교양오락	112021.0	131031.0	97336.5	56354.7	56653.5
교통통신	300798.6	248196.7	221647.0	165056.8	162569.2
(공공교통)	48090.2	42681.8	50430.9	47922.7	46625.0
(개인교통)	218507.3	163896.9	140059.4	82512.8	84416.9
(통신)	34201.2	41618.0	31156.6	34621.4	31527.3
기타소비지출	449869.3	301149.9	336129.3	270754.1	259088.9
(이미용서비스)	25714.8	21127.1	24053.2	23052.4	21333.9
(장신구)	12243.6	12607.7	13124.3	9407.2	7846.3
(경조비)	105312.2	66494.7	78189.9	67085.0	65141.0
○ 비소비지출	499304.4	259088.4	308952.3	213830.5	167764.4
조세	141132.3	86070.1	77511.0	45072.9	35671.9
사회보장분담금	117846.4	66517.5	73767.5	38214.0	36165.1
지급이자	53620.6	54700.8	52749.7	35402.4	31667.9
송금 및 보조	181519.6	49447.0	98651.6	55679.7	59215.3

<표 6-3(2)>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직업별 소비지출구성비

(단위: %)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가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비지출	80.4 (100.0)	86.0 (100.0)	83.9 (100.0)	86.7 (100.0)	88.7 (100.0)
식료품	(23.1)	(24.8)	(24.7)	(27.7)	(27.7)
(외식)	(9.3)	(10.4)	(10.4)	(9.2)	(8.3)
주거비	(2.5)	(2.7)	(2.8)	(4.1)	(3.6)
(월세)	(0.3)	(1.1)	(1.1)	(2.3)	(1.7)
(기타주거비)	(2.2)	(1.6)	(1.7)	(1.8)	(1.9)
광열수도	(3.8)	(3.6)	(3.4)	(5.0)	(5.0)
가구·가사용품	(7.3)	(4.3)	(6.5)	(3.2)	(3.8)
(가구·가사용품)	(2.7)	(2.1)	(3.6)	(2.5)	(3.2)
(가사·사용인·급료)	(1.5)	(0.5)	(0.3)	(0.1)	(0.03)
(보육료)	(2.9)	(1.4)	(2.4)	(0.4)	(0.3)
피복·및·신발	(9.9)	(9.5)	(10.5)	(9.1)	(8.0)
보건·의료	(3.8)	(4.0)	(4.0)	(4.3)	(4.2)
교육	(7.4)	(8.3)	(7.2)	(11.3)	(11.3)
교양·오락	(5.5)	(8.3)	(6.1)	(4.0)	(4.3)
교통·통신	(14.9)	(15.7)	(13.8)	(11.8)	(12.4)
(공공·교통)	(2.4)	(2.7)	(3.1)	(3.4)	(3.5)
(개인·교통)	(10.8)	(10.3)	(8.7)	(5.9)	(6.4)
(통신)	(1.7)	(2.6)	(1.9)	(2.5)	(2.4)
기타·소비지출	(22.2)	(19.0)	(20.9)	(19.4)	19.7
(이미·용·서비스)	(1.3)	(1.3)	(1.5)	(1.7)	(1.6)
(장·신·구)	(0.6)	(0.8)	(0.8)	(0.7)	(0.6)
(경·조·비)	(5.2)	(4.2)	(4.9)	(4.8)	(5.0)
○ 비·소비·지·출	19.6 (100.0)	14.0 (100.0)	16.1 (100.0)	13.3 (100.0)	11.3 (100.0)
조·세	(28.3)	(33.2)	(25.1)	(21.1)	(21.3)
사·회·보·장·분·담·금	(23.6)	(25.7)	(23.9)	(17.9)	(2.8)
지·급·이·자	(10.7)	(21.1)	(17.1)	(16.6)	(18.9)
송·금·및·보·조	(36.4)	(19.1)	(31.9)	(26.0)	(4.5)

(2) 소득계층별

전 소득계층에 있어서 비소비지출을 포함하는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의 규모가 맞벌이가구에 비해 비맞벌이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지출규모 또한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4(1) 참조). 따라서 대부분의 지출비목에 대해 비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의 소비지출규모를 보였으나 주부취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공공교통비, 그리고 월세 등은 전 소득계층에 있어 맞벌이가구의 지출이 많았고, 지출구성비 또한 높은 비목들이었다(표 6-4(2) 참조).

저소득-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의 10.2%가 교육비지출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층 또한 10.8%라는 높은 교육비지출구성비를 보였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비맞벌이가구의 교육비지출이 10.7%로 맞벌이가구의 9.3%보다 높게 나타나 이 집단이 고액 사교육비지출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교육비지출은 월평균 235,864.1원으로 저소득-비맞벌이가구의 69,533.2원에 비해 3.4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한편 사적 이전에 해당하는 비소비지출의 송금 및 보조는 중저소득층에서는 맞벌이에서, 고소득층에서는 비맞벌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급이자는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맞벌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4(1)>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규모

(단위: 원)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가계지출	1056466.1	1095366.5	1529717.2	1605218.3	2393294.2	260650.9
○ 소비지출	968026.8	1006182.0	1353066.8	1418689.9	1961568.3	2202515.3
식료품	280317.9	285205.2	367552.2	392151.1	493850.6	584471.6
(외식)	72122.8	70030.7	118481.6	115926.6	200181.1	214848.6
주거비	54696.6	44498.9	44560.0	57049.9	59030.6	78667.0
(월세)	36650.3	25403.2	22698.3	17043.1	16317.1	8329.9
(기타주거비)	18046.3	19095.8	21861.7	40006.7	42713.4	70337.1
광열수도	64530.7	60094.5	63826.7	66480.9	72146.9	80241.7
가구·가사용품	35740.9	53329.2	53590.5	64290.7	98216.6	93115.3
(가구·가사용품)	29545.7	48855.3	41195.9	57940.5	52074.7	75414.4
(가사사용인급료)	320.0	206.9	975.5	392.7	11883.4	9305.5
(보육료)	3599.8	1437.0	8350.6	1914.5	29429.4	2447.1
피복및신발	74357.8	74022.3	117296.5	113800.6	191004.1	205876.3
보건의료	42047.9	59041.0	54800.1	72582.1	83561.6	85304.6
교육	98660.4	69533.2	146595.5	137486.3	183006.3	235864.1
교양오락	34919.2	42440.8	68226.7	66726.8	98267.5	102298.3
교통통신	101345.1	100584.6	171060.9	171245.3	275009.4	283297.5
(공공교통)	38816.2	29875.4	45939.8	36690.8	56385.2	49380.5
(개인교통)	37905.5	45854.3	93375.5	99532.5	175076.1	185642.4
(통신)	24623.4	24854.9	31745.6	35022.0	43548.1	48274.6
기타소비지출	181410.3	217432.2	265557.7	276876.1	407474.6	453378.9
(이미용서비스)	16338.1	16110.1	21624.8	21491.5	28690.4	33901.8
(장신구)	5978.6	7788.8	8584.7	9007.4	14225.6	22868.3
(경조비)	41760.0	45002.5	63386.4	67340.5	104471.5	108837.1
○ 비소비지출	88439.3	89184.5	176650.4	186528.4	431725.9	403535.6
조세	13575.7	18776.4	37588.8	52783.2	117687.8	163165.9
사회보장분담금	20805.4	23103.2	39349.7	43555.9	87405.8	58785.8
지급이자	19347.3	14269.8	33703.0	31501.8	61853.6	41485.5
송금 및 보조	33134.1	30826.9	61483.5	55404.7	112041.4	134253.5

<표 6-4(2)>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성비

(단위: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가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비지출	91.6 (100.0)	91.9 (100.0)	88.5 (100.0)	88.4 (100.0)	82.0 (100.0)	84.5 (100.0)
식료품	(29.0)	(28.3)	(27.2)	(27.6)	(25.2)	(26.5)
(외식)	(10.3)	(7.0)	(8.8)	(8.2)	(10.2)	(9.8)
주거비	(5.7)	(4.4)	(3.3)	(4.0)	(3.0)	(3.6)
(월세)	(3.8)	(2.5)	(1.7)	(1.2)	(0.8)	(0.4)
(기타주거비)	(1.9)	(1.9)	(1.6)	(2.8)	(2.2)	(3.2)
광열수도	(6.7)	(6.0)	(4.7)	(4.7)	(3.7)	(3.6)
가구·가사용품	(3.7)	(5.3)	(4.0)	(4.5)	(5.0)	(4.2)
(가구·가사용품)	(3.1)	(4.9)	(3.0)	(4.1)	(2.7)	(3.4)
(가사사용인급료)	(0.03)	(0.02)	(0.07)	(0.02)	(0.6)	(0.4)
(보육료)	(0.4)	(0.1)	(0.6)	(0.1)	(1.5)	(0.1)
피복및신발	(7.7)	(7.4)	(8.7)	(8.0)	(9.7)	(9.3)
보건의료	(4.3)	(5.9)	(4.1)	(5.1)	(4.3)	(3.9)
교육	(10.2)	(6.9)	(10.8)	(9.7)	(9.3)	(10.7)
교양오락	(3.6)	(4.2)	(5.0)	(4.7)	(5.0)	(4.6)
교통통신	(10.5)	(10.0)	(12.6)	(12.1)	(14.0)	(12.9)
(공공교통)	(4.0)	(3.0)	(3.4)	(2.6)	(2.9)	(2.2)
(개인교통)	(3.9)	(4.6)	(6.9)	(7.0)	(8.9)	(8.4)
(통신)	(2.5)	(2.5)	(2.3)	(2.5)	(2.2)	(2.2)
기타소비지출	(18.7)	(21.6)	(19.6)	(19.5)	(20.8)	(20.6)
(이미용서비스)	(1.7)	(1.6)	(1.6)	(1.5)	(1.5)	(1.5)
(장신구)	(0.6)	(0.8)	(0.6)	(0.6)	(0.7)	(1.0)
(경조비)	(4.3)	(4.5)	(4.7)	(4.7)	(5.3)	(4.9)
○ 비소비지출	8.4 (100.0)	8.1 (100.0)	11.5 (100.0)	11.6 (100.0)	18.0 (100.0)	15.5 (100.0)
조세	(15.4)	(21.1)	(21.3)	(28.3)	(27.3)	(40.4)
사회보장분담금	(23.5)	(25.9)	(22.3)	(23.4)	(20.2)	(14.6)
지급이자	(21.9)	(16.0)	(19.1)	(16.9)	(14.3)	(10.3)
충금 및 보조	(37.5)	(34.6)	(34.8)	(29.7)	(26.0)	(33.3)

(3) 연령계층별

배우자연령계층에 따라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규모와 지출구성비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5(1), 6-5(2) 참조). 특히 20대 이하와 30대 집단에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일반적 통념으로 알려져 있는 맞벌이가구의 특성을 보였다. 이들의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규모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많았으며, 이후 연령 대에서는 비맞벌이가구가 도리어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대 이하 집단의 경우 외식비지출이 월평균 144,986.0원으로 소비지출의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또한 20대 이하 맞벌이가구는 월평균 31,950원을 지출하여 소비지출의 2.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동일연령계층의 비맞벌이집단의 0.3%와 많은 차이가 있다. 20대 이하와 30대 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개인교통비와 공공교통비지출이 많음에 따라 교통통신비가 소비지출의 14%대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피복 및 신발,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등에 대한 지출도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높은 지출을 보임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지출이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배우자가 40대이상인 가구에서는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와 비교할 때 공공교통비와 교육비지출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0대가구의 경우 맞벌이의 교육비 지출구성비는 13.2%로 비맞벌이의 12.8%에 비해 높았으며, 50대가구 역시 맞벌이의 3.5%와 비맞벌이의 2.4%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은 취업배우자의 경우 취업관련비용을 극소화하고 추가소득을 자녀의 교육비지출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표 6-5(1)> 연령계층별 소비지출규모

(단위: 원)

	20대이하		30대		40대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가계지출	1456003.5	1239339.2	1630813.2	1534649.2	1791063.9	1927208.0
○ 소비지출	1274862.3	1123677.1	1434493.7	1364421.9	1509482.7	1673304.9
식료품	323802.7	302370.4	383156.4	375414.7	407986.7	453732.2
(외식)	144986.0	97121.5	126507.6	104997.3	129654.5	138234.1
주거비	46250.1	42478.0	47087.0	58989.9	53682.6	73592.8
(월세)	31625.4	25940.9	26244.3	21176.1	21123.3	13958.7
(기타주거비)	14624.7	16537.1	20842.7	37813.8	32559.2	59634.1
광열수도	50857.2	55954.3	63947.8	63126.7	75002.4	76043.5
가구·가사용품	85302.1	69133.3	64401.4	60591.8	42986.2	60883.5
(가구·가사용품)	47889.7	61538.9	38252.1	51597.2	37007.1	54486.7
(가사사용인급료)	2708.6	716.3	5524.7	2139.1	1690.5	2196.2
(보육료)	31950.5	3672.3	17077.9	2470.0	757.2	88.4
피복및신발	136435.6	91154.6	127312.7	111947.2	129250.0	140180.5
보건의료	48976.2	73692.0	54096.2	62352.6	72283.5	69400.5
교육	37769.6	31431.8	176410.4	177996.6	199810.2	214651.3
교양오락	91094.0	59379.7	71376.3	63393.8	59048.4	66568.1
교통통신	181497.9	143609.3	201828.6	166717.8	169509.0	196792.7
(공공교통)	41699.7	28900.2	35844.7	27109.1	62271.4	49358.4
(개인교통)	106195.2	83131.4	132569.6	105962.4	73310.2	110219.4
(통신)	33603.0	31577.7	33414.2	33646.3	33927.4	37214.9
기타소비지출	272876.9	254473.6	244876.9	223890.8	299923.8	321459.8
(이미용서비스)	17635.9	14894.0	22426.0	20375.8	24876.3	26322.8
(장신구)	12369.1	7558.8	8531.7	8376.0	7676.4	12025.5
(경조비)	56721.1	43534.0	54997.1	47238.5	77346.4	78211.0
○ 비소비지출	181141.2	115662.1	196319.5	170227.3	281581.2	253903.0
조세	37726.1	27504.6	46090.2	51205.8	67749.5	87705.2
사회보장분담금	43683.5	31828.7	50202.7	38656.5	49571.4	46622.3
지급이자	33285.8	18409.0	39104.1	32699.9	38137.8	26069.4
송금 및 보조	59789.5	35700.4	56496.6	44101.8	84466.8	89538.9

<표 6-5(1)> 계 속

	50대		60대이상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가계지출	1735707.0	1847326.6	1395190.4	1426778.2
○소비지출	1487179.9	1586681.7	1272429.3	1254073.6
식료품	416555.5	452559.1	296369.7	362480.4
(외식)	131151.6	151425.2	77189.5	97695.2
주거비	46424.7	46004.1	131822.0	43439.3
(월세)	7407.8	8863.2	17998.8	9669.7
(기타주거비)	39016.9	37140.9	113823.2	33769.6
광열수도	73349.7	75811.9	60477.8	74854.1
가구·가사용품	71782.7	84357.3	19886.6	46977.7
(가구가사용품)	65184.7	77251.2	18143.6	43507.2
(가사사용인급료)	2922.5	2840.1	83.8	350.3
(보육료)	392.3	502.2	0.0	117.6
피복및신발	113773.4	130076.7	101032.0	97087.9
보건의료	61916.4	81762.7	58361.3	98204.5
교육	52183.7	37517.4	28666.9	23216.7
교양오락	63613.2	72808.6	32627.0	56994.8
교통통신	170899.8	156621.2	89975.6	135385.9
(공공교통)	58280.9	52408.5	50588.0	43694.6
(개인교통)	79710.7	71000.6	19453.9	63622.6
(통신)	32908.2	33212.0	19933.7	28068.7
기타소비지출	416680.6	449162.7	453210.3	315432.3
(이미용서비스)	23937.0	28216.1	13691.4	23707.3
(장신구)	15315.9	20531.8	5416.5	17375.1
(경조비)	129376.8	131169.8	87508.2	91031.5
○비소비지출	248527.1	260644.9	122761.1	172704.6
조세	65906.7	90545.0	36904.7	61463.3
사회보장분담금	43588.5	40770.2	19962.1	28628.0
지급이자	44321.5	27667.7	18570.2	19013.7
송금 및 보조	93215.8	97703.6	38398.9	62794.2

<표 6-5(2)> 연령계층별 소비지출구성비

(단위: %)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맞별 이	비맞 별이								
가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지출	87.6 (100.0)	90.7 (100.0)	88.0 (100.0)	88.9 (100.0)	84.3 (100.0)	86.8 (100.0)	85.7 (100.0)	85.9 (100.0)	91.2 (100.0)	87.9 (100.0)
식료품	(25.4)	(26.9)	(26.7)	(27.5)	(27.0)	(27.1)	(28.0)	(28.5)	(23.3)	(28.9)
(외식)	(11.4)	(8.6)	(8.8)	(7.7)	(8.6)	(8.3)	(8.8)	(8.8)	(6.1)	(7.8)
주거비	(3.6)	(3.8)	(3.3)	(4.3)	(3.6)	(4.4)	(3.1)	(2.9)	(10.4)	(3.5)
(월세)	(2.5)	(2.3)	(1.8)	(15.8)	(1.4)	(0.8)	(0.5)	(0.5)	(1.4)	(0.8)
(기타주거비)	(1.1)	(1.5)	(1.5)	(2.8)	(2.2)	(3.6)	(2.6)	(2.3)	(8.9)	(2.7)
광열수도	(4.0)	(5.0)	(4.5)	(4.6)	(5.0)	(4.5)	(4.9)	(4.8)	(4.8)	(6.0)
가구가사용품	(6.7)	(6.2)	(4.5)	(4.4)	(2.8)	(3.6)	(4.8)	(5.3)	(1.6)	(3.7)
(가구가사용품)	(3.8)	(5.5)	(2.7)	(3.8)	(2.5)	(3.3)	(4.4)	(4.9)	(1.4)	(3.5)
(가사사용인급료)	(0.2)	(0.1)	(0.4)	(0.2)	(0.1)	(0.1)	(0.2)	(0.2)	(0.01)	(0.03)
(보육료)	(2.5)	(0.3)	(1.2)	(0.2)	(0.05)	(0.005)	(0.03)	(0.03)	(0.0)	(0.01)
피복및신발	(10.7)	(8.1)	(8.9)	(8.2)	(8.6)	(8.4)	(7.7)	(8.2)	(7.9)	(7.7)
보건의료	(3.8)	(6.6)	(3.8)	(4.6)	(4.8)	(4.1)	(4.2)	(5.2)	(4.6)	(7.8)
교 육	(3.0)	(2.8)	(12.3)	(13.0)	(13.2)	(12.8)	(3.5)	(2.4)	(2.3)	(1.9)
교양오락	(7.1)	(5.3)	(5.0)	(4.6)	(3.9)	(4.0)	(4.3)	(4.6)	(2.6)	(4.5)
교통통신	(14.2)	(12.8)	(14.1)	(12.2)	(11.2)	(11.8)	(11.5)	(9.9)	(7.1)	(10.8)
(공공교통)	(3.3)	(2.6)	(2.5)	(2.0)	(4.1)	(2.9)	(3.9)	(3.3)	(4.0)	(3.5)
(개인교통)	(8.3)	(7.4)	(9.2)	(7.8)	(4.9)	(6.6)	(5.4)	(4.5)	(1.5)	(5.1)
(통신)	(2.6)	(2.8)	(2.3)	(2.5)	(2.2)	(2.2)	(2.2)	(2.1)	(1.6)	(2.2)
기타소비지출	(21.4)	(22.6)	(17.1)	(16.4)	(19.9)	(19.2)	(28.0)	(28.3)	(35.6)	(25.2)
(이미용서비스)	(1.4)	(1.3)	(1.6)	(1.5)	(1.6)	(1.6)	(1.6)	(1.8)	(1.1)	(1.9)
(장신구)	(1.0)	(0.7)	(0.6)	(0.6)	(0.5)	(0.7)	(1.0)	(1.3)	(0.4)	(1.4)
(경조비)	(4.4)	(3.9)	(3.8)	(3.5)	(5.1)	(4.7)	(8.7)	(8.3)	(6.9)	(7.3)
○비소비지출	12.4 (100.0)	9.3 (100.0)	12.0 (100.0)	11.1 (100.0)	15.7 (100.0)	13.2 (100.0)	14.3 (100.0)	14.1 (100.0)	8.8 (100.0)	12.1 (100.0)
조세	(20.8)	(23.8)	(23.5)	(30.1)	(24.1)	(34.5)	(26.5)	(34.7)	(30.1)	(35.6)
사회보장분담금	(24.1)	(27.5)	(25.6)	(22.7)	(17.6)	(18.4)	(17.5)	(15.6)	(16.3)	(16.6)
지급이자	(18.4)	(15.9)	(19.9)	(19.2)	(13.5)	(10.3)	(17.8)	(10.6)	(15.1)	(11.0)
송금 및 보조	(33.0)	(30.9)	(28.8)	(25.9)	(30.0)	(35.3)	(37.5)	(37.5)	(31.3)	(36.4)

6.2 소비지출에 대한 맞벌이상태의 효과분석

(1) 분석방법

소비지출에 대한 맞벌이상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의 두 단계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는 가구소득에서 배우자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동일한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구의 저축 및 소비지출을 분석함으로써 맞벌이에 따른 저축 및 소비지출규모에 대한 총변화량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circled{1} \text{Exp}_i = f(\text{기타소득, 맞벌이여부변수(맞벌이 vs. 비맞벌이)}, \text{기타가구특성변수})$$

여기서 Exp_i 는 저축 및 소비지출 각 세부비목(i)에 대한 월평균지출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지출비목은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원자료 지출비목의 대분류인 10대 소비지출비목(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한편 맞벌이여부에 따라 지출액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소비지출 항목을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저축은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가계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배우자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과 기타가구특성이 동일한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하였다. 이는 구매력 및 기타가구특성이 동일한 상태에서 맞벌이/비맞벌이 집단의 선호의 차이에 따른 소비지출행태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circled{2} \text{Exp}_j = f(\text{가구소득, 맞벌이여부변수(맞벌이 vs. 비맞벌이)}, \text{기타가구특성변수})$$

한편 맞벌이여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의 형태는 가구 소득계층 및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먼저 맞벌이여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소득계층별로 파악하기 위해 위의 ①, ②식을 소득계층별로도 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의 분류는 연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하위 30%, 고소득층은 상위 20%, 중소득층은 나머지 가운데의 50%를 대상으로 하였다.

배우자의 직업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는 위의 ①, ②식의 맞벌이여부변수에 배우자직업 변수를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배우자 직업변수는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의 5개 더미변

수였다. 기타가구특성변수로는 가구원 수, 가구주연령계층, 가구주직업, 교육 수준, 입주형태, 주택대출상환여부, 거주지역 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2) 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① 소득계층별

배우자가 취업을 하게 됨에 따른 소비지출규모의 총변화량은 배우자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동일한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을 비교해봄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표 6-6 참조). 표의 수치는 각 소비지출 비목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맞벌이여부 변수의 회귀계수 값이다.

소비지출의 규모를 살펴보면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소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중, 고소득층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취업을 함에 따른 소비지출규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은 소비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 고소득층가구가 배우자에 의한 추가소득을 자산축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생필품 내지는 자녀교육의 경우처럼 지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목에 추가소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가 취업을 하게 됨에 따른 추가소득의 효과는 가구의 구매력을 상승시킴으로써 지출비목 대부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가구·가사용품,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각 지출비목의 세부비목들의 성격이 달라 각기 정(+)적, 부(-)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로 상쇄되어졌기 때문이다. 주거비의 경우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월세지출이 많은 반면, 배우자의 시간투입이 요구되는 주택수리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주거비는 도리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가사용품의 경우도 일반가구·가사용품은 맞벌이가구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서비스인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등의 지출은 많았다.

가구소득과 가구특성이 동일한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규모의 비교는 구매력이 동일한 상태에서의 두 집단의 소비지출 선호에 의한 소비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표 6-7 참조).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맞벌이가구는 맞벌이를 위한 추가지출을 하기보다는 자산축적 내지는 장래의 재무목적달성을 위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가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들에서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규모가 비맞벌이가구의 경우보다 도리어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흔히 식사준비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식비지출에서 조차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월평균 10,856원 가량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6> 맞벌이여부가 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t-값)
(배우자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동일한 경우)**

	전체가구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가계지출	131798**	69922*	34219	98686
○소비지출	96760**	59529*	22628	57615
식료품	11985**	12867*	-2928	17327
(외식)	21104**	11132**	11000**	37945**
주거비	-3038	8709	-4875	-19617
(월세)	2391**	3103*	3709**	1091
(기타주거비)	-5429*	5606	-8584*	-20708*
광열수도	1263	4749**	1506	169
가구·가사용품	3294	4527	-6901	6029
(가구·가사용품)	-11177*	2844	-14464**	-20107
(가사사용인급료)	2549**	16	410	9304**
(보육료)	12365**	2091**	7732**	17245**
피복및신발	19526**	11997**	10589**	8460
보건의료	-9341**	-8849*	-13840**	-11923
교육	22831**	23370**	18408**	10344
교양오락	5480	4078	3591	7404
교통통신	38339**	-4258	5641	69538*
(공공교통)	8614**	1620	5032**	13690**
(개인교통)	28541**	-7634	1035	60277*
(통신)	1185	1755	-427	-4430
기타소비지출	6422	2340	11438	-30116
(이미용서비스)	1561**	956	1310*	-1159
(장신구)	-135	841	-1951	1409
(경조비)	8525**	-6018*	7537**	11144
○비소비지출	35038**	10393	11591	41071
조세	-1208	-1300	-6563**	-18427
사회보장분담금	8648**	-121	-30	20754**
지급이자	11016**	4910*	4918*	17139**
송금 및 보조	7439	5806	10351	-21852
○저축	436691	242488**	346461**	637710**

* = P<.05; ** = P<.01

**<표 6-7> 맞벌이여부가 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t-값)
(가구소득이 동일한 경우)**

	전체가구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가계지출	-235133**	-77796*	-141394**	-422293**
○소비지출	-200550**	-61706*	-116251**	-378726**
식료품	-40699**	-17445**	-31806**	-59315**
(외식)	-10856**	-1155	-3963	-11270
주거비	-10306**	2523	-10846**	-25810*
(월세)	2271**	2025	1474	1352
(기타주거비)	-12578**	498	-12321**	-27163**
광열수도	-588**	1103	-163	-2632
가구·가사용품	-20190**	-3783	-11240*	-36017
(가구·가사용품)	-31726**	-5795	-17628**	-61751**
(가사사용인급료)	1217**	-20	-1	7285**
(보육료)	11086**	2648**	7247**	19293**
피복및신발	-5961**	-2013	-6799*	-18251
보건의료	-17821**	-14675**	-21192**	-21365**
교육	15879**	17861**	11238**	3223
교양오락	-9821	-6696	-6477	-11573
교통통신	14340	-12354	-14018	63690*
(공공교통)	4671**	21	3484**	11126**
(개인교통)	11439	-12377	-14019	58655*
(통신)	-1770*	2	-3484**	-6192*
기타소비지출	-125384**	-26227**	-24947**	-270675**
(이미용서비스)	-626	-703	-521	-2920*
(장신구)	-7919**	11	-3563**	-13721*
(경조비)	-1594	-12890**	-3843	5902
○비소비지출	-34583**	-16090*	-25143**	-43567
조세	-22378**	-7487**	-21946**	-37648**
사회보장분담금	1817*	-6226**	-5584**	20465**
지급이자	6028**	1209	2654	10674
송금 및 보조	-24997**	-4793	-1935	-71411*
○저축	235133**	77796*	141394**	422293**

* = P<.05; ** = P<.01

가사사용인급료를 살펴보면 고소득계층의 경우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조절이 불가능한 가사노동인 자녀교육의 경우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전집단에서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이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많았다. 직장으로의 이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인 교통비의 경우도 맞벌이가구가 다소 높았다.

교육비와 월세에 있어서도 지출규모에 비해 맞벌이상태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에 의해 소비지출행태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월세와 자녀교육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벌이를 선택한 사후적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② 배우자 직업별

<표 6-8>은 맞벌이가구를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구분하여 배우자소득의 가구소득이 동일한 비맞벌이가구와 비교한 결과이다. 배우자가 관리전문직인 경우 취업에 따른 소비지출증가분이 가장 커서 월평균 465,933원이 많았으며 저축증가분 또한 이들 집단이 621,080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비지출증가분이 많은 집단은 사무직의 경우로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월평균 289,036원의 추가지출이 있었으며 이들의 저축증가분은 443,376원으로 전문직, 준전문직 다음이었다.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배우자를 둔 가구의 경우 두 직업 모두 상근직 또는 봉급생활자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취업에 따른 소비지출에의 영향력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한 이유로 서비스직과 생산직 근무 배우자를 둔 가구 또한 유사한 형태의 소비지출에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경우 피복 및 신발, 공공교통 및 개인교통, 이미용서비스 등 배우자 개인의 취업관련비용 지출이 많았다. 반면 서비스, 노무직의 경우는 배우자취업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비지출이 많았으며, 공공교통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직업별로 가구소득이 동일한 비맞벌이가구와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지출비목에 대해 맞벌이의 지출규모가 적었다(표 6-9 참조). 가사사용인급료의 경우 관리전문직과 사무직가구에서 각기 월평균 18,898원, 2,673원 지출이 많았으며, 보육료의 경우 전 직업에서 맞벌이가구의 지출규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관리전문직가구의 경우 월평균 47,641원의 지출차이를 보였다. 경조비지출에 있어서도 두 집단 모두 비맞벌이가구와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관리전문직가구의 경우 피복 및 신발비 또한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지출규모가 큰 유일한 맞벌이집단이었으며, 노무직의 경우 이 지출비목에 대해서조차도 지출규모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적었

다. 또한 관리전문직 가구의 경우 개인교통비의 지출이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월평균 75,541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큰 폭의 차이를 보인 반면,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등은 공공교통비에 대한 지출규모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관리전문직가구가 타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관련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구소득을 가진 비맞벌이가구와 비교할 때 저축규모는 많아서 월평균 172,904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준전문직, 서비스직, 노무직등 취업관련비용지출이 적은 가구의 경우 저축규모에 있어 각기 332,592원, 282,193원, 216,541원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사무직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지 않으면서 사회보장분담금, 경조비, 보육료 등 취업관련비용의 지출이 있음에 따라 이 집단의 저축증가분은 월평균 145,178원으로 다섯개 배우자직업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6-8> 배우자직업별 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t-값)
(배우자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동일한 경우)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가계지출	642399**	105248	398588**	-58871	119775**
○ 소비지출	465933**	82509	289036**	-58582	96804**
식료품	46792**	874	48783**	-10811**	13385**
(외식)	43671**	27838**	51773**	7441*	16454**
주거비	4634	-10733	-400	-4460	-4042
(월세)	-1222	-130	3245	5676**	496
(기타주거비)	5856	-10603	-3645	-10136**	-4539
광열수도	5254*	-1571	517	3585**	-82
가구·가사용품	64746**	180	32439**	-18226**	1893
(가구·가사용품)	-5721	-27625*	-1279	-24876**	-2053
(가사사용인급료)	21430**	3489*	4354**	301	377
(보육료)	49197**	24724**	30102**	6800**	3876**
피복및신발	75975**	22712**	40149**	8418*	12353**
보건의료	2944	-17643*	-2724	-15269**	-8964**
교 육	2557	10743	21782**	24464**	26257**
교양오락	21488	38089*	8315	-9390	6770
교통통신	126144**	57889*	80068**	12700	30144**
(공공교통)	14293**	8005**	14845**	8028**	6998**
(개인교통)	111773**	45652	62696**	2858	21300*
(통신)	78	4232	2526	1815	1846
기타소비지출	115398*	-18031	60107	-49594*	19090
(이미용서비스)	4715**	-652	3171**	839	1353**
(장신구)	2794	453	-108	-2099	529
(경조비)	34249**	4881	23772**	4717	4543
○ 비소비지출	176466**	22739	109551**	-289	22972
조세	31312**	-1984	16920**	-8798**	-5248
사회보장분담금	61934**	12154**	29772**	-1529	2061
지급이자	11925*	26804**	26478**	7021**	6983**
송금 및 보조	67926**	-12642	37466*	-18828	13976
○ 저 축	621080**	576921**	443376**	408756**	398774**

* = P<.05; ** = P<.01

**<표 6-9> 배우자직업이 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t-값)
(가구소득이 동일한 경우)**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가계지출	-172904*	-332592**	-145178*	-282193**	-216541**
○ 소비지출	-196382**	-272473**	-152831**	-239269**	-176910**
식료품	-71351**	-62353**	-30055**	-42944**	-35509**
(외식)	-27623**	-10402	4213	-12038**	-12990**
주거비	-11713	-19507*	-11304	-8933*	-10789**
(월세)	-1524	-269	3038	5618**	354
(기타주거비)	-10189	-19238*	-14342*	-14551**	-11144**
광열수도	1195	-3633	-2212	2596*	-1841
가구·가사용품	13236	-27292	-1953	-32136**	-19493**
(가구·가사용품)	-52424**	-52321**	-32503**	-37267**	-21597**
(가사사용인급료)	18898**	2090	2673*	-433	-639
(보육료)	47641**	23737**	29094**	6216**	3344**
피복및신발	20080*	-7414	2891	-7006	-10625**
보건의료	-16089*	-27850**	-15420**	-20468**	-16825**
교 육	-13831	1827	10874	19855**	19580**
교양오락	-12534	19900	-14392	-18624*	-7323
교통통신	74743**	29626	45951*	-2066	9418
(공공교통)	5669	3207	9127**	5491**	3562**
(개인교통)	75541**	25644	38639	-7640	6752
(통신)	-6468**	775	-1851	83	-897
기타소비지출	-180118**	-175776**	-137174**	-129544**	-103503**
(이미용서비스)	-164	-3298**	-78	-525	-641
(장신구)	-14742**	-8920**	-11811**	-6856**	-6736**
(경조비)	12241*	-6921	9091*	-1293	-4547
○ 비소비지출	23478	-60119*	7653	-42924**	-39630**
조세	-15443*	-27285**	-14226*	-21805**	-24396**
사회보장분담금	48129**	4387	20633**	-5679**	-3378**
지급이자	1096	20995**	19255**	4062	2512
송금 및 보조	-4084	-51410*	-10543	-38654**	-15659
○ 저 축	172904*	332592**	145178*	282193**	216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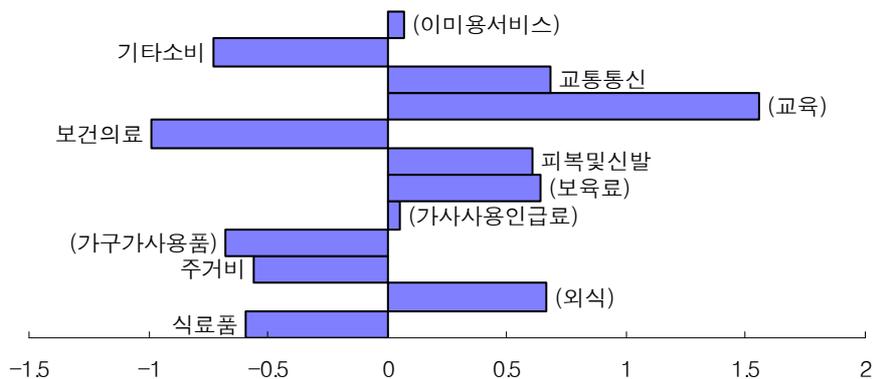
* = P<.05; ** = P<.01

(3) 소비지출구성비에 미치는 영향

<표 6-10>은 맞벌이여부가 소비지출구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결과로 회귀분석결과 중 맞벌이여부의 회귀계수를 정리한 것이며, 이중 유의미한 결과는 <그림 6-1>로 도표화하였다. 가구특성과 가구소득이 동일한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간의 소비지출구성비를 비교하면 맞벌이가구는 외식 및 보육료 등과 같이 가사노동의 양을 줄이기 위한 부분의 지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복 및 신발, 교통, 이미용서비스, 가사사용인급료 등 취업관련비용에도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높은 지출구성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직업집단별로 보았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특히 교육비지출구성비가 높았다. 이를 배우자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의 경우 교육비지출구성비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적은 반면, 배우자가 서비스직 및 노무직/기타 집단의 경우 교육비지출구성비가 약 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서비스 및 노무직/기타의 경우 추가소득을 자녀 사교육비 충당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 기타주거비, 가구·가사용품, 보건의료비등의 지출구성비는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에 비해 도리어 적었는데 이러한 지출비목들은 소비지출을 위한 배우자의 시간이 요구되는 비목들이다. 한편 공적연금가입의 가능성이 높은 관리전문직, 사무직인 경우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지출구성비의 비중이 높았다.

<그림 6-1> 맞벌이여부에 따른 소비지출구성비의 차이



<표 6-10> 맞벌이여부가 소비지출구성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t-값)

	전 체	배우자직업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 소비지출	-0.217	-0.869	-0.126	-1.887**	0.241	-0.202
식료품	-0.596**	-1.783**	-1.459*	-1.959**	-0.303	-0.306
(외식)	0.669**	-0.395	0.670	0.917**	0.866**	0.523**
주거비	-0.560**	-0.849*	-0.670*	-0.457	-0.580**	-0.591**
(월세)	-0.029	-0.194	-0.110	0.028	0.048	-0.099
(기타주거비)	-0.531**	-0.654*	-0.560*	-0.485*	-0.628**	-0.492**
광열수도	0.002	0.302	-0.230	-0.477*	0.302**	-0.084
가구·가사용품	-0.034	1.834**	0.037	0.583*	-0.367*	-0.208
(가구·가사용품)	-0.680**	-1.153**	-1.264**	-0.864**	-0.761**	-0.426**
(가사사용인급료)	0.056**	0.669**	0.058	0.119**	0.008	-0.014
(보육료)	0.642**	2.369**	1.309**	1.428**	0.423**	0.273**
피복및신발	0.610**	1.116**	0.763	0.438	0.916**	0.349*
보건의료	-0.990**	-0.723	-1.380**	-1.399**	-1.005**	-0.942**
교육	1.552**	-0.941*	0.764	0.584	1.858**	1.999**
교양오락	-0.149	-0.328	1.032	-0.325	-0.353**	-0.119**
교통통신	0.680**	1.806**	1.964**	1.209*	0.503*	0.442
(공공교통)	0.444**	0.645**	0.578**	0.704**	0.441**	0.354**
(개인교통)	0.286	1.405**	1.296*	0.843*	-0.075	0.118
(통신)	-0.050	-0.244	0.090	-0.339**	0.137	-0.030
기타소비지출	-0.731**	-1.305*	-0.947	-0.084	-0.731*	-0.742**
(이미용서비스)	0.068*	0.031	-0.062	-0.004	0.125**	0.058
(장신구)	-0.090**	-0.170	-0.067	-0.115	-0.069	-0.093*
(경조비)	0.119	0.611	0.269	0.455	0.141	-0.034
○ 비소비지출	0.217	0.869	0.126	1.887**	-0.241	0.202
조세	-0.848**	-1.125**	-0.775**	-0.676**	-0.845**	-0.840**
사회보장분담금	0.129*	1.743**	0.075	0.732**	-0.146	0.001
지급이자	0.450**	-0.292	1.138**	0.771**	0.461**	0.355**
송금 및 보조	0.376*	0.616	-0.227	1.056**	0.112	0.551**
○ 저 축	16.226**	6.158	17.284**	3.886	19.918**	17.476**

* = P<.05; ** = P<.01

6.3 소비지출구조 분석 요약

맞벌이가구의 월평균가계지출은 1,657,956.6원이었으며, 비맞벌이가구는 이보다 54,657.3원이 적은 1,603,299.3원이었다. 맞벌이가구는 보육료 지출이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591.2%나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사사용인급료, 지금이자, 공공교통, 월세, 사회보장분담금의 순이었다. 배우자가 관리전문직이거나 사무직인 경우 보육료, 가사사용인급료 등 취업관련비목의 지출이 많았으며, 서비스직과 노무직의 경우는 교육비지출이 많았다. 유사하게 배우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교육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30대가구의 경우 보육료, 외식비, 교통통신비, 피복 및 신발 등 취업과 관련한 지출비목의 지출이 많았으며 40대가구는 교육비지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타가구특성을 조절한 상태에서 맞벌이상태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배우자소득외 가구소득이 동일한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맞벌이가구의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구소득이 동일한 상태에서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일부 취업관련비목에서만 지출규모에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층일수록, 화이트칼라직종인 경우인 경우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교통비등에서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비지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VII. 가계경제구조 분석: 소비성향 & 흑자액

‘96가계소비실태조사’는 월평균소득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가구에 한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월소득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는 소비성향과 흑자액의 산출을 다루는 본 장에서는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의 구조상의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집단의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하였다.

7.1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구조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구조를 살펴보면 이미 분석된 연소득 자료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전체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의 86.7%가 근로소득이었고, 가구주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6%로 나타났다(표 7-1 참조).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구의 가구주의 월평균소득은 1,350,021.3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1,478,820.0원에 비해 적었으나 배우자가 583,511.1원을 추가소득으로 획득함에 따라 총근로소득은 도리어 맞벌이가구가 43만원 가량이 많았다. 맞벌이가구에서 가구주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6.7% 수준이었다.

반면 비맞벌이가구의 경우 가구주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여타 비근로소득에 있어서도 비맞벌이가구는 맞벌이가구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구조

	전체가구		맞벌이		비맞벌이	
	(원)	(%)	(원)	(%)	(원)	(%)
소 득	2,055,638.4	100.0	2,381,139.2	100.0	1,860,344.3	100.0
○근로소득	1,781,265.8	86.7	2,047,830.0	86.0	1,621,332.4	87.2
가구주소득	1,430,521.5	69.6	1,350,021.3	56.7	1,478,820.0	79.5
배우자소득	224,630.0	10.9	583,511.1	24.5	9,308.2	0.5
기타가구원소득	126,114.3	6.1	114,297.5	4.8	133,204.2	7.2
○사업및가내소득	91,513.9	4.5	192,308.7	8.1	31,038.9	1.7
○재산소득	46,745.8	2.3	30,121.4	1.3	56,720.1	3.0
○이전소득	33,988.8	1.7	26,307.8	1.1	38,597.2	2.1
○기타소득	102,124.2	5.0	84,571.3	3.6	112,655.6	6.1

7.2 맞벌이/비맞벌이가구의 가계경제수지

<표 7-2>는 근로자가구의 흑자액, 평균소비성향 등을 포함하는 가계경제수지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월평균가처분소득 2,143,490.3원 중 1,414,345.5원을 지출함으로써 월평균 729,144.8원의 흑자액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맞벌이가구는 맞벌이가구에 비해 339,140.0원이라는 월등히 적은 흑자액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맞벌이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들(Strober, 1977등)에 의하면 맞벌이가구의 소비성향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맞벌이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6.0에 불과함으로써 비맞벌이가구의 79.6과는 무려 13.6의 격차를 보였다.

<표 7-2> 근로자가구의 가계경제수지

구 분	전 체	맞벌이가구 ^㉑	비맞벌이가구 ^㉒	㉑-㉒	(㉑-㉒)/㉒ ×100
소득 ^①	2055638.4	2381139.2	1860344.3	520794.9	28.0
비소비지출 ^②	210481.9	237648.9	194182.3	43466.6	22.4
가처분소득(①-②=③)	1845156.5	2143490.3	1666162.0	477328.3	28.6
가계지출 ^④	1570245.2	1651994.4	1521197.3	130797.1	8.6
소비지출 ^⑤	1359763.3	1414345.5	1327015.0	87330.5	6.6
흑자액(①-④=⑥)	485393.2	729144.8	339147.0	389997.8	115.0
흑자율(⑥/③)	26.3	34.0	20.4	13.6	
평균소비성향(⑤/③)	73.7	66.0	79.6	-13.6	

(1) 배우자직업별

<표 7-3>는 배우자직업에 따른 가계경제수지상태를 나타낸다. 배우자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3,335,875.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의 순이었다.

그러나 관리전문직가구의 경우 소비지출규모가 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크으로써 가장 높은 평균소비성향을 보인다. 이들의 소비성향은 70.4였으며, 이는 67.5이하의 여타집단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결과적으로 관리전문직은 최고의 가구소득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흑자액의 규모에서는 준전문직의 927,125.3원보다 적은 838,769.6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관련지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7-3> 근로자가구의 배우자직업별 가계경제수지

구 분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소득①	3335875.9	2763641.6	2630283.8	2369934.7	2130557.2
비소비지출②	501063.3	264931.7	319974.4	238963.5	174517.8
가처분소득(①-②=③)	2834812.6	2498709.9	2310309.4	2130971.2	1956039.4
가계지출④	2497106.3	1836516.3	1878651.1	1606848.8	1475211.5
소비지출⑤	1996043.0	1571584.6	1558676.7	1367885.3	1300693.6
흑자액(①-④=⑥)	838769.6	927125.3	751632.7	763085.9	655345.7
흑자율(⑥/③)	29.6	37.1	32.5	35.8	33.5
평균소비성향(⑤/③)	70.4	62.9	67.5	64.2	66.5

(2) 소득계층별

<표 7-4>은 소득계층별로 가계경제수지상태를 비교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평균소비성향이 낮았으며 따라서 흑자율과 흑자액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 소득계층에 걸쳐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흑자율과 흑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맞벌이가구의 경우 월평균 흑자액이 100만원을 상회하며(1,149,246.4원)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맞벌이가구의 215,526.8원과 비교할 때 5.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따라서 고소득-맞벌이가구의 자산축적이 타집단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고소득-맞벌이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3.5로 이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비맞벌이가구의 75.4에 비해 도리어 낮았다.

<표 7-4>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경제수지

구 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소득①	1199685.6	1109482.0	2036619.6	1931116.8	3584196.8	3739231.5
비소비지출②	77128.0	94348.9	172639.1	192290.3	435018.7	481478.5
가처분소득(①-②=③)	1122557.6	1015133.1	1863980.5	1738826.5	3149178.1	3257753.0
가계지출④	984158.8	1005439.7	1402020.0	1531986.2	2434950.4	2937224.5
소비지출⑤	907030.7	911090.8	1229380.9	1339696.0	1999931.7	2455746.0
흑자액(①-④=⑥)	215526.8	104042.3	634599.6	399130.6	1149246.4	802007.0
흑자율(⑥/③)	19.2	10.2	34.0	23.0	36.5	24.6
평균소비성향(⑤/③)	80.8	89.8	66.0	77.0	63.5	75.4

(3) 연령계층별

<표 7-5>은 연령계층별 가계경제수지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처분 소득을 살펴보면 비맞벌이가구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증가하나 맞벌이가구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가구주소득이 적은 젊은 시기동안 배우자소득에 의해 완충되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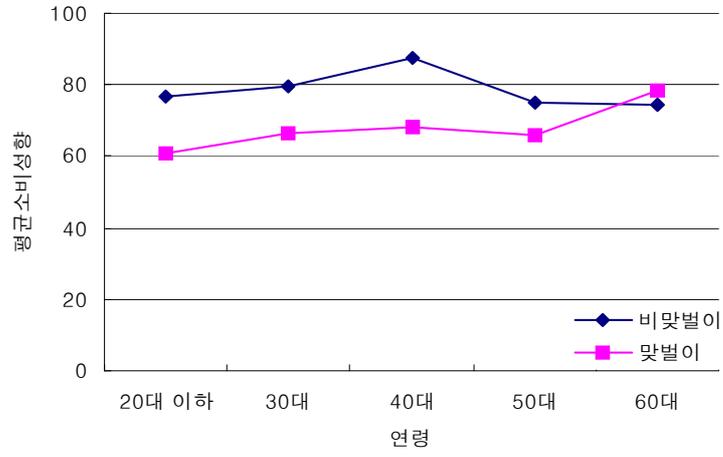
20대이하가구는 월평균 흑자액이 806,406.5원으로 연령계층 중 가장 높았으며, 흑자율 또한 39.1%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맞벌이가구들이 가계자산축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7-1>는 연령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을 보여준다. 전 연령계층에서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소비성향이 낮았으며, 또한 연령의 변화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양집단 모두 40대에서 가장 높은 소비성향을 나타냈다.

<표 7-5>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가계경제수지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소득①	2248523.2	1591237.3	2364222.1	1776926.1	2509772.9	2147226.2
비소비지출②	185561.2	122897.1	215427.7	172485.7	310971.1	273501.0
가처분소득(①-②=③)	2062962.0	1468340.2	2148794.4	1604440.4	2198801.8	1873725.2
가계지출④	1442116.7	1246004.1	1643226.0	1449503.9	1804034.5	1914727.2
소비지출⑤	1256555.4	1123107.0	1427798.3	1277018.1	1493063.3	1641226.2
흑자액(①-④=⑥)	806406.5	345233.2	720996.1	327422.2	705738.4	232499.0
흑자율(⑥/③)	39.1	23.5	33.6	20.4	32.1	12.4
평균소비성향(⑤/③)	60.9	76.5	66.4	79.6	67.9	87.6
구 분	50대		60대 이상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소득①	2409470.1	2317609.1	1795346.3	1626026.5		
비소비지출②	229782.2	295382.3	120870.3	217859.3		
가처분소득(①-②=③)	2179687.9	2022226.8	1674476.0	1408167.2		
가계지출④	1665158.7	1807406.4	1435777.8	1262265.3		
소비지출⑤	1435376.4	1512024.1	1314907.6	1044406.0		
흑자액(①-④=⑥)	744311.4	510202.7	359568.5	363761.2		
흑자율(⑥/③)	34.1	25.2	21.5	25.8		
평균소비성향(⑤/③)	65.9	74.8	78.5	74.2		

<그림 7-1> 연령계층별 평균소비성향



VIII. 가계경제구조 분석: 저축과 부채

8.1 저축보유여부와 구조

(1) 저축보유여부

조사대상가구의 98.9%가 제도권 및 비제도권 금융권에 어느 형태로든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1 참조). 일상생활의 자금운용수단으로 편리성이 강조되는 은행요구불 저축은 맞벌이 및 비맞벌이가구의 90%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돈마련의 성격을 가지는 은행저축성 및 보험권저축, 계불입금에서는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간 보유율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보다 다양한 저축형태를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계불입과 빌려주는 등의 사금융의 이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맞벌이가구의 경우 계 불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무려 3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맞벌이가구의 24.6%에 비해 5.9%가 높았다.

<표 8-1> 조사대상가구의 저축보유여부

(단위: %)

	전체가구	맞벌이①	비맞벌이②	①-②
저축보유	98.9	99.3	98.7	0.6
○은행권요구불	90.0	90.0	90.0	0
○은행권저축성	71.0	73.4	69.9	3.5
○보험권저축	68.1	72.0	66.4	5.6
○비은행권저축	20.2	20.5	20.0	0.5
○유가증권	9.3	9.0	9.4	-0.4
○계불입금	26.4	30.5	24.6	5.9
○빌려준돈	18.7	19.1	18.5	0.6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직업별 저축보유여부를 보면 은행권저축성은 사무직에서, 보험권저축은 준전문직에서, 비은행권저축은 관리전문직에서 비교적 높은 보유비율을 나타냈다(표 8-2 참조). 한편 서비스직 및 노무직/기타는 계불입금에 3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8-2> 배우자직업별 저축보유여부

(단위: %)

	맞벌이가구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저축보유액	99.3	100.0	99.4	100.0	99.1	99.2
○은행권요구불	90.0	94.2	90.3	92.4	90.4	88.7
○은행권저축성	73.4	79.8	77.6	85.6	70.2	71.7
○보험권저축	72.0	79.8	84.3	78.2	68.4	70.3
○비은행권저축	20.5	36.1	23.5	29.0	19.9	16.5
○유가증권	9.0	17.4	17.1	16.0	7.0	6.6
○계불입금	30.5	22.9	28.5	22.2	31.3	33.0
○빌려준돈	19.1	17.7	22.4	19.1	19.4	18.5

저축은 가계 금융자산 정도를 나타냄으로써 소득계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른 저축보유여부를 보면 모든 저축수단에 있어서 저소득층보다는 중위 및 상위소득계층으로 올수록 더 높은 보유율을 보였다(표 8-3 참조). 특히 고소득층에 있어 사금융 수단인 계불입금과 빌려준 돈의 보유율이 높았으며, 고소득층 맞벌이가구에서 비맞벌이에 비해 보험권저축 및 유가증권의 보유율이 높았다.

<표 8-3> 소득계층별 저축보유여부

(단위: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저축보유액	97.0	97.2	99.8	99.6	100.0	99.7
○은행권요구불	86.2	87.3	90.5	90.6	92.2	94.7
○은행권저축성	57.5	58.2	75.4	75.5	82.1	80.5
○보험권저축	53.0	54.1	74.4	72.7	82.2	76.5
○비은행권저축	12.8	13.2	19.3	22.0	30.0	30.0
○유가증권	1.9	3.5	7.2	12.0	19.2	15.9
○계불입금	23.2	17.3	30.7	26.4	36.0	36.2
○빌려준돈	12.8	14.1	18.9	19.9	25.0	24.6

소비에 대한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가계는 일생에 걸쳐 가지게 될 생애

소득에 기초하여 생활주기에 따라 소비를 균등화하는 수단으로 저축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생활주기는 가구의 저축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우자 연령을 가정생활주기의 대리변수로 볼 때 맞벌이가구의 은행저축성 및 보험권저축은 가정생활주기상 30대 및 30대 미만에서 비교적 높은 보유비율을 나타냈다(표 8-4 참조). 이는 주택금융 미활성화 및 가계의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이유로 가정생활주기상 초기에 목돈마련 성격의 저축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사금융권 저축수단인 계불입금은 맞벌이가구의 모든 연령대에 있어 20% 이상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비맞벌이가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표 8-4> 연령계층별 저축보유여부

(단위: %)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은행권요구불	90.7	89.6	90.1	90.4	89.8	91.8	90.8	87.9	81.8	86.5
○은행권저축성	78.4	70.6	74.5	72.0	71.5	71.5	71.6	64.6	40.9	51.8
○보험권저축	74.5	72.5	77.6	74.0	70.1	63.1	53.8	49.5	36.4	34.4
○비은행권저축	20.9	16.9	20.6	19.1	20.8	23.0	20.2	22.2	10.6	21.3
○유가증권	9.2	7.4	9.9	10.9	8.5	10.9	7.6	7.2	0.0	5.7
○계불입금	21.1	16.8	31.8	25.0	32.5	28.0	33.2	29.8	25.8	21.0
○빌려준돈	21.3	19.7	20.9	20.0	17.7	18.7	13.6	13.6	10.6	13.5

(2) 저축규모 및 구조

조사대상가구의 평균 총저축보유액은 19,051.2천 원이었다(표 8-5 참조). 맞벌이상태에 따른 저축규모를 보면 맞벌이가구의 평균 총저축보유액은 18,140.7천원이고 비맞벌이가구는 19,458.6천원으로 비맞벌이가 맞벌이에 비해 1317.9천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저축수단별로 볼 때 비맞벌이가구는 보험권저축과 계불입금을 제외한 모든 저축수단에서 맞벌이보다 더 많은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저축구성비는 저축수단에 따른 가계저축의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한다.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저축구성비를 보면 총저축액 중 가장 많은 49.5%를 은행권 저축성상품에 소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보험권저축(17.4%)과 은행권 요구불(15.4%) 순이었다.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은행권저축성, 보험권저축과 같은 목돈마련수단에서 더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었으며 고

수익을 추구하는 유가증권과 계불입금에도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표 8-5> 저축규모 및 구조

(단위: 천원, %)

	저축규모				구성비			
	전체가구	맞벌이①	비맞벌이②	①-②	전체가구	맞벌이①	비맞벌이②	①-②
총저축보유액	19051.2	18140.7	19458.6	-1317.9	100.0	100.0	100.0	0.0
○은행권요구불	2929.9	2625.5	3066.1	-440.9	15.4	14.5	15.8	-1.3
○은행권저축성	6494.0	6333.8	6565.7	-231.9	34.1	34.9	33.7	1.2
○보험권저축	3317.4	3513.8	3229.5	284.3	17.4	19.4	16.6	2.8
○비은행권저축	2191.9	1747.4	2390.8	-643.4	11.5	9.6	12.3	-2.7
○유가증권	979.0	678.5	1113.4	-434.9	5.1	3.7	5.7	2.0
○계불입금	1224.3	1486.5	1107.0	379.5	6.4	8.2	5.7	2.5
○빌려준돈	1914.7	1755.1	1986.1	-231	10.1	9.7	10.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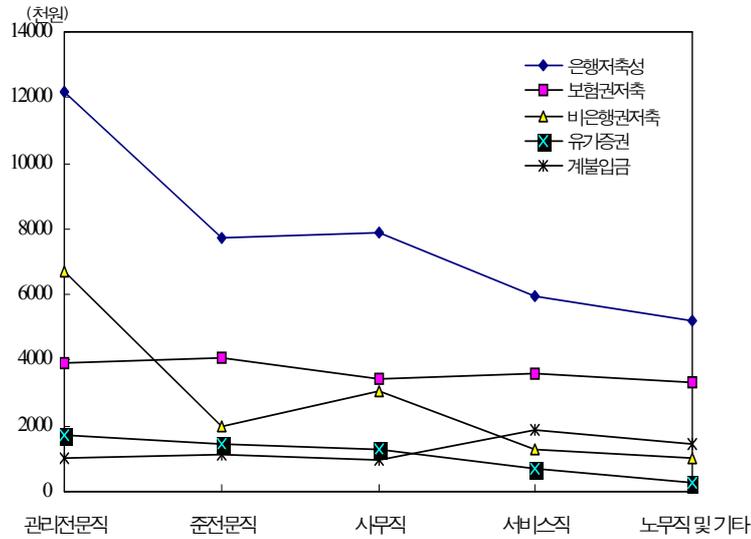
배우자직업별 저축보유액을 보면 관리전문직이 31,044.5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준전문직(22,323.8천원), 사무직(20,682.0천원), 서비스직(17,694.1천원), 노무직/기타(15407.9천원)의 순이었다(표 8-6 참조). 한편 배우자직업에 따른 저축수단별 보유액을 보면 은행저축성과 비은행권저축이 직업의 종류에 따라 변동이 컸다(그림 8-1 참조). 이들에게서 저축은 관리전문직에서 가장 높고 준전문직 및 사무직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노무직/기타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보험권저축은 배우자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유가증권은 다른 직종에 비해 서비스직과 노무직/기타에서 낮은 반면 계불입금은 반대로 서비스직과 노무직/기타에서 높아지고 있었다.

<표 8-6> 배우자직업별 저축보유액

(단위: 천원)

	맞벌이가구	직업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
저축보유액	18140.7	31044.5	22323.8	20682.0	17694.1	15407.9
○은행권요구불	2625.5	4072.3	3983.5	2488.6	2475.4	2343.3
○은행권저축성	6333.8	12184.7	7735.7	7881.3	5964.7	5203.6
○보험권저축	3513.8	3916.6	4051.6	3437.6	3572.5	3345.3
○비은행권저축	1747.4	6685.3	1968.5	3081.1	1301.5	1043.8
○유가증권	678.5	1716.8	1448.5	1285.1	687.0	259.7
○계불입금	1486.5	1001.5	1110.2	990.1	1868.5	1456.8
○빌려준돈	1755.1	1467.3	2025.8	1518.3	1824.4	1755.4

<그림 8-1> 배우자직업별 저축보유액



소득계층별 저축보유액을 보면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맞벌이에 비해 비맞벌이가 더 많은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표 8-7 참조). 비맞벌이가구는 맞벌이에 비해 저소득층에서는 22.9%, 중소득층에서는 16.2%, 고소득층에서는 35.9% 더 높은 저축보유액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는 비은행권저축과 유가증권, 빌려준돈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유가증권과 빌려준돈은 특히 맞벌이집단에서 그 차이가 더 컸다. 저축수단별 구성비를 보면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은행 요구불 저축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다. 전소득계층에서 맞벌이는 비맞벌이에 비해 보험권저축액이 높은 편이었고 비맞벌이는 비은행권저축에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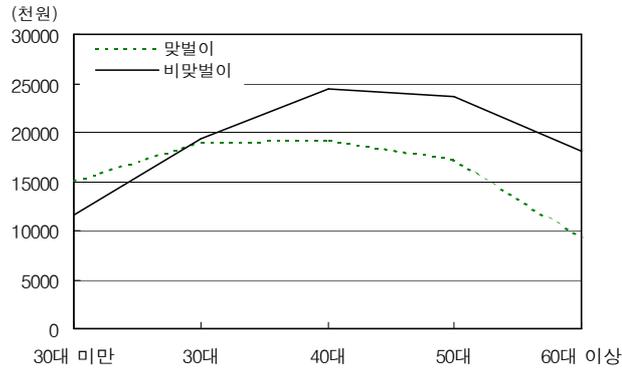
<표 8-7> 소득계층별 저축보유액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고소득/저소득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액 수 (천 원)							
저축보유액	7552.3	9285.3	15486.0	17996.3	31994.7	43493.1	4.24	4.68
○은행권요구불	1708.3	1933.1	2422.9	2799.9	3763.1	6015.1	2.20	3.11
○은행권저축성	2470.3	3321.7	5595.1	6032.2	10862.2	14406.7	4.40	4.34
○보험권저축	1510.0	1758.1	3186.0	3367.6	5736.2	5785.5	3.80	3.29
○비은행권저축	592.8	718.8	1128.8	1928.4	4011.7	6925.1	6.77	9.63
○유가증권	56.7	236.0	408.6	1040.6	1753.2	3045.8	30.9	12.9
○계불입금	686.9	490.6	1396.9	1012.7	2279.1	2578.1	3.32	5.25
○빌려준돈	527.4	827.0	1347.9	1814.9	3589.2	4736.8	6.81	5.73
	구 성 비 (%)							
저축보유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행권요구불	22.6	20.8	15.6	15.6	11.8	13.8		
○은행권저축성	32.7	35.8	36.1	33.5	33.9	33.1		
○보험권저축	20.0	18.9	20.6	18.7	17.9	13.3		
○비은행권저축	7.8	7.7	7.3	10.7	12.5	15.9		
○유가증권	0.8	2.5	2.6	5.8	5.5	7.0		
○계불입금	9.1	5.3	9.0	5.6	7.1	5.9		
○빌려준돈	7.0	8.9	8.7	10.1	11.2	10.9		

연령계층에 따른 저축보유액을 보면 초기단계에 있는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었다(그림 8-2 참조). 그러나 30대 이후에는 비맞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더 높은 저축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두 집단간 저축규모의 차이는 연령이 더해갈수록 더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맞벌이가구는 30대 이전과 40대 이후가 서로 다른 경제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볼 수 있다.

연령계층별 맞벌이상태에 따른 저축수단별 규모를 보면 은행권저축과 유가증권에서 맞벌이가구는 30대 미만에서는 맞벌이가구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으나 30대 이후에서는 비맞벌이가 더 큰 액수를 가지고 있었다(표 8-8 참조). 한편 비은행권저축에서는 전 생활주기에 걸쳐 비맞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에 비해, 그리고 계불입금에서는 전 생활주기에 걸쳐 맞벌이가 비맞벌이에 비해 높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림 8-2> 연령계층별 저축보유액



<표 8-8> 연령계층별 저축보유액

(단위: 천원, %)

	30대미만		30대		40대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저축보유액	15071.6	11642.2	19006.6	19297.9	19271.0	24457.3
○은행권요구불	1861.9	1711.3	2568.6	2797.5	3047.5	4311.2
○은행권저축성	6645.7	4257.1	6295.8	6385.2	6369.4	7649.5
○보험권저축	2865.0	2446.8	4036.5	3896.9	3405.7	3413.8
○비은행권저축	999.9	1029.8	1804.4	2065.1	2269.3	3411.2
○유가증권	865.7	694.3	825.2	1147.8	524.1	1499.2
○계불입금	1024.4	575.4	1632.1	1064.3	1443.3	1282.3
○빌려준돈	809.1	927.4	1844.1	1941.1	2211.7	2890.1
	50대		60대이상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저축보유액	17223.5	23607.2	9259.5	18089.3		
○은행권요구불	2936.0	3842.7	1947.7	3002.6		
○은행권저축성	6319.9	8703.4	2865.0	6344.2		
○보험권저축	2978.6	2421.3	1337.3	2216.5		
○비은행권저축	1281.7	3679.8	532.5	2248.2		
○유가증권	296.8	1053.8	0.0	985.6		
○계불입금	1817.3	1761.9	1241.3	787.1		
○빌려준돈	1593.2	2144.3	1335.7	2505.2		

맞벌이상태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맞벌이는 보험권저축과 계불입금의 보유 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유가증권과 빌려준돈은 낮추

는 효과를 가졌다(표 8-9 참조). 한편 맞벌이상태는 저축보유액과 대체적으로 부적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총저축보유액에서 맞벌이상태는 4,298.2천원 더 감소하는 효과를 가졌다. 이를 개별저축수단별로 보면 은행권저축성과 비은행권저축, 유가증권, 빌려준돈에서 각각 1,418.8천원, 3,215.8천원, 5,268.6천원, 1,686.2천원 감소하는 효과를 가졌다.

<표 8-9> 맞벌이가 저축보유액에 미치는 영향: 로짓분석결과

	저축보유여부		저축보유액	
	회귀계수	수정된 R ²	회귀계수	수정된 R ²
총저축보유액			-4298.2**	0.2057
○은행권요구불저축			-1191.8**	0.0386
○은행권저축성저축	-0.0320	18421.7**	-1418.8**	0.1104
○보험권저축	0.0629**	18654.9**	-86.9	0.0740
○비은행권저축	-0.0419	15696.0**	-3215.8**	0.1573
○유가증권	-0.1379**	8760.0**	-5268.6**	0.0668
○계불입금	+0.0972**	18055.4**	261.4	0.1258
○빌려준돈	-0.0565*	15231.4**	-1686.2*	0.1135

주: 부호는 로짓분석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영향력(5% 유의수준)의 방향을 의미.

8.2 부채보유여부와 구조

(1) 부채보유여부

조사대상가구의 부채보유여부를 보면 전체의 69.1%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출처수는 1.12였다(표 8-10 참조). 부채출처별로 보면 할부 및 외상잔액에서 41.4%의 가구들이 부채를 이용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은행권부채로 35.9%의 보유율을 나타냈다.

맞벌이가구중 부채보유가구는 73.5%인 반면 비맞벌이가구는 67.2%로써 맞벌이가구가 6.3% 더 높은 비율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맞벌이에 비해 맞벌이가구는 은행권 및 할부 및 외상잔액에서 부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부채보유여부

(단위: %)

	전체가구	맞별이①	비맞별이②	①-②
부채출처수	1.12	1.23	1.08	0.15
부채보유가구	69.1	73.5	67.2	6.3
○은행권	35.9	38.8	34.7	4.1
○비은행권	7.7	9.5	6.9	2.6
○보험권	6.3	7.4	5.9	1.5
○빌린돈	14.5	15.4	14.0	1.4
○계탄돈	6.6	8.0	6.0	2.0
○할부및외상잔액	41.4	43.6	40.4	3.2

배우자직업에 따른 부채보유여부를 보면 관리전문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군에서 80% 이상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표 8-11 참조). 부채출처별로 비교해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관리전문직은 은행권부채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준전문직은 보험권부채에서, 서비스직과 노무직/기타는 사금융인 빌린돈에서 높은 보유비율을 보였다.

<표 8-11> 배우자직업별 부채보유여부

(단위: %)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
부채총액	83.2	82.3	81.5	69.9	71.7
○은행권부채	52.6	48.1	51.0	34.1	36.4
○보험권부채	6.1	13.8	8.0	6.0	7.6
○비은행권부채	14.4	9.9	13.8	9.0	8.2
○빌린돈	12.5	9.7	12.8	17.7	15.6
○계탄돈	7.0	9.9	4.9	9.3	7.4
○할부및외상잔액	49.8	57.5	51.6	40.1	41.5

소득계층에 따른 부채보유여부를 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부채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그리고 같은 소득계층내에서도 비맞별이보다는 맞별이가구가 부채보유비율이 높았다(표 8-12 참조). 중소득 및 고소득층에서는 제도권 금융인 은행권이나 보험권, 비은행권, 할부 등으로부터의 부채보유비율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사금융인 빌린돈에서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같은 사금융 수단인 계탄돈에서는 고소득층의 보유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8-12> 소득계층별 부채보유여부

(단위: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부채총액	63.5	59.5	74.7	71.8	79.0	71.4
○은행권부채	27.9	24.8	38.3	40.7	49.2	39.7
○보험권부채	5.2	4.5	8.1	6.6	7.6	6.8
○비은행권부채	6.0	4.8	9.6	8.3	12.2	7.8
○빌린돈	20.1	17.4	15.8	13.0	10.7	9.4
○계탄돈	4.5	3.4	8.1	6.1	10.5	11.8
○할부 및 외상잔액	34.1	34.4	44.4	43.4	49.7	45.6

연령계층별 부채보유여부를 보면 40대 이후에서 부채보유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60대 이상에 있어서는 부채보유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았다. 또한 각 연령대에서는 비맞벌이보다 맞벌이가 더 높은 비율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표 8-13 참조).

<표 8-13> 연령계층별 부채보유여부

(단위: %)

	30대미만		30대		40대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부채총액	78.7	70.6	77.2	72.9	69.1	63.6
○은행권부채	33.0	29.5	44.2	40.8	37.4	34.3
○보험권부채	6.0	4.9	8.4	8.2	7.9	4.9
○비은행권부채	10.0	6.5	9.6	6.9	8.8	7.2
○빌린돈	16.0	14.5	14.5	15.6	15.5	13.1
○계탄돈	5.4	3.7	9.3	6.9	8.2	5.9
○할부 및 외상잔액	58.4	50.8	46.4	44.4	37.6	35.6
	50대		60대이상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부채총액	66.2	57.0	50.0	45.8		
○은행권부채	30.8	29.1	22.7	19.5		
○보험권부채	4.6	3.5	1.5	1.8		
○비은행권부채	11.0	7.5	6.1	3.9		
○빌린돈	18.8	10.9	15.2	12.9		
○계탄돈	5.4	7.4	4.5	4.5		
○할부 및 외상잔액	31.2	27.2	18.2	19.5		

(2) 부채규모 및 구조

조사대상가구의 총부채규모는 7,870.3천원이었다(표 8-14 참조). 이중 은행권부채가 55.4%를 차지하여 월등히 많았고 다음으로는 할부 및 외상잔액(18.8%), 빌린돈(14.1%), 비은행권부채(9.3%) 등의 순이었다. 맞벌이상태별로 부채규모를 보면 맞벌이가구가 8,890.5천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비맞벌이가구의 7,413.8천원보다 1476.7천원 더 많았다. 부채출처별로는 비맞벌이에 비해 계탄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14> 부채규모 및 구조

(단위: 천원, %)

	부채규모				구성비			
	전체가구	맞벌이①	비맞벌이②	①-②	전체가구	맞벌이①	비맞벌이②	①-②
부채총액	7,870.3	8,890.5	7,413.8	1476.7	100.0	100.0	100.0	0.0
○은행권부채	4,356.5	4,857.0	4,132.5	724.5	55.4	54.6	55.7	-1.1
○보험권부채	490.4	579.8	450.4	129.4	6.2	6.5	6.1	0.4
○비은행권부채	729.2	858.1	671.6	186.5	9.3	9.7	9.1	0.6
○빌린돈	1,109.1	1,181.2	1,076.8	104.4	14.1	13.3	14.5	-1.2
○계탄돈	615.2	815.6	525.6	290	7.8	9.2	7.1	2.1
○할부 및 외상잔액	569.9	598.8	557.0	41.8	18.8	6.7	7.5	-0.8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직업별 부채규모를 보면 관리전문직이 12,934.0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무직, 준전문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의 순이었다(표 8-15 참조). 부채출처별로 보면 모든 직종에서 은행권부채가 단연 높았는데 특히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서는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보험권부채는 다른 직종에 비해 관리전문직 및 사무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비은행권부채는 준전문직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빌린돈과 계탄돈을 통한 사금융부채는 비교적 직업안정도가 낮은 서비스직과 노무직/기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8-15> 배우자직업별 부채규모 및 구조

	배우자 직업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액 수 (천 원)				
부채총액	12934.0	11253.1	12754.8	8323.8	7443.5
○은행권부채	8204.5	6116.9	7897.6	4068.2	4042.5
○보험권부채	1456.0	734.7	1633.5	864.7	609.4
○비은행권부채	699.8	1833.7	646.5	399.7	472.5
○빌린돈	1232.3	1103.0	1362.3	1274.8	1076.9
○계탄돈	484.1	621.9	324.6	1159.9	760.5
○할부 및 외상잔액	857.4	843.0	890.4	560.5	481.7
	구 성 비 (%)				
부채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은행권부채	63.4	54.4	61.9	48.9	54.3
○보험권부채	11.3	6.5	12.8	10.4	8.2
○비은행권부채	5.4	16.3	5.1	4.8	6.3
○빌린돈	9.5	9.8	10.7	15.3	14.5
○계탄돈	3.7	5.5	2.5	13.9	10.2
○할부 및 외상잔액	6.6	7.5	7.0	6.7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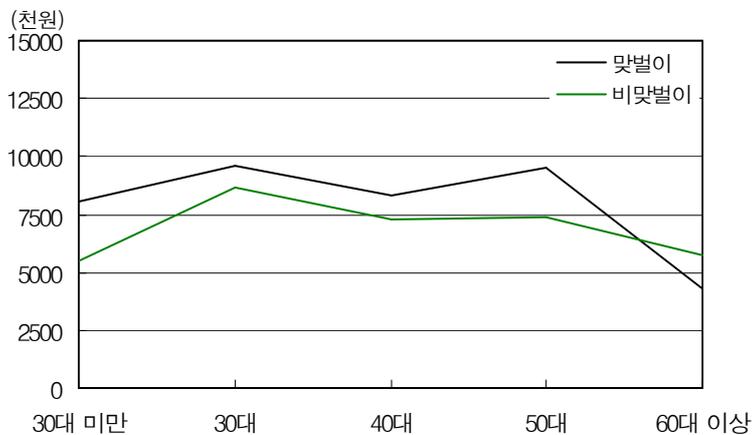
소득계층별 부채규모를 보면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부채규모가 커지고 있었다(표 8-16 참조). 또한 저소득 및 고소득층에서는 맞벌이가 비맞벌이에 비해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득층에서는 비맞벌이가 다소 높은 부채규모를 보이고 있었다. 은행권 및 보험권은 중소득 및 고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빌린돈은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계탄돈은 고소득층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8-16> 소득계층별 부채규모 및 구조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액 수 (천 원)					
부채총액	4339.0	4024.9	7684.2	8049.2	14994.9	12465.1
○은행권부채	2111.7	2054.6	4023.5	4645.8	8781.4	6904.3
○보험권부채	358.1	328.6	754.8	797.3	1462.0	1021.0
○비은행권부채	219.9	240.3	545.5	540.1	922.9	631.1
○빌린돈	1092.4	830.5	1036.9	955.5	1576.6	1884.6
○계탄돈	277.5	221.6	710.3	495.4	1451.9	1208.1
○할부 및 외상잔액	279.5	349.3	613.2	615.1	800.1	816.1
	구 성 비 (%)					
부채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행권부채	48.7	51.0	52.4	57.7	58.6	55.4
○보험권부채	8.3	8.2	9.8	9.9	9.7	8.2
○비은행권부채	5.1	6.0	7.1	6.7	6.2	5.1
○빌린돈	25.2	20.6	13.5	11.9	10.5	15.1
○계탄돈	6.4	5.5	9.2	6.2	9.7	9.7
○할부 및 외상잔액	6.4	8.7	8.0	7.6	5.3	6.5

연령계층별 부채보유액을 보면 60대를 제외한 거의 전 연령층에 있어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8-3 참조). 맞벌이와 비맞벌이 공히 30대에서 가장 높은 부채사용을 보였고 50대에서 다시 높은 부채사용을 보였는데 이는 가정생활주기상 30대는 주택마련과 관련된 부채사용이 예상되며 50대에서는 자녀 대학교육 및 자녀결혼비용과 관련된 부채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8-3> 연령계층별 부채보유액



<표 8-17> 맞벌이상태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부채보유여부		부채보유액	
	회귀계수	수정된 R ²	회귀계수	수정된 R ²
부채총액	0.1239**	17429.42**	84	0.0912**
○은행권부채	0.0587**	16260.98**	-183	0.1029**
○보험권부채	0.1064**	7511.63	-999	0.0713**
○비은행권부채	0.1371**	8606.06	-947	0.0407**
○빌린돈	0.0893**	13133.04	-1309**	0.1415**
○계탄돈	0.1323**	7640.96	434	0.2339**
○할부 및 외상잔액	0.0188	20993.17**	4	0.0250**

주: 부호는 로짓분석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영향력(5% 유의수준)의 방향을 의미.

맞벌이상태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맞벌이는 가구의 부채보유 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졌다(표 8-17 참조). 부채출처별로 볼 때도 할부 및 외상잔액을 제외한 모든 부채에서 그 보유 확률을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부채보유액에 미치는 맞벌이상태의 영향은 부채총액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채출처별로도 빌린돈에서만 1,309원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8.3 순저축보유액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보유액에서 부채보유액을 제한 것을 순저축보유액으로 정의한다. 조사대상가구의 순저축보유액은 11,180.9천원이었다(표 8-18 참조). 맞벌이가구의 순저축보유액은 9,250.2천원이며 비맞벌이가구는 12,044.8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가 2,794.6천원 더 많은 순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에 비해 저축은 1,317.9천원 적고 부채총액은 1,476.7천원 더 많은 결과이다.

한편 최근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의 활성화 및 신용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부채보유액이 도리어 저축보유액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순저축보유액을 가지는 가구의 비율이 2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19 참조). 맞벌이가구의 경우 24.6%로 22.9%인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이러한 마이너스 순저축보유액의 가구비율이 다소 높았다. 배우자의 직종별로 살펴보면 직종과 무관하게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마이너스순저축보유액의 가구 비율이 높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사무직인 경우가 가장 높아서 30.2%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18> 순저축보유액

(단위: 천원)

	전체가구	맞벌이가구①	비맞벌이가구②	①-②
총저축보유액①	19051.2	18140.7	19458.6	-1317.9
부채총액②	7870.3	8890.5	7413.8	1476.7
순저축보유액(①-②)	11180.9	9250.2	12044.8	-2794.6

<표 8-19> 배우자직업별 마이너스 순저축보유액의 가구비율

(단위: %)

전체가구	맞벌이	직업별					비맞벌이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	
23.4	24.6	24.5	24.6	30.2	24.1	23.7	22.9

배우자직업별 순저축보유액을 보면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은 12,934.0천원의 부채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2.4배에 해당하는 31,044.5천원의 저축보유액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장 높은 18,110.5천원의 순저축보유액을 나타냈다(표 8-20 참조). 다음으로는 준전문직이 부채에 비해 약 2배의 저축보유액을 가지고 있어 11,070.7천원의 순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무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부채대비 가장 낮은 저축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가장 낮은 7,927.2천원의 순저축을 가지고 있었다. 서비스직과 노무직/기타는 부채의 2.1배에 해당하는 저축을 가지고 있었다.

<표 8-20> 배우자직업별 순저축보유액

(단위: 천원)

	맞벌이	직업별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
저축보유액	18140.7	31044.5	22323.8	20682.0	17694.1	15407.0
부채보유액	8890.5	12934.0	11253.1	12754.8	8323.8	7443.5
저축보유액/부채보유액	2.0	2.4	2.0	1.6	2.1	2.1
순저축보유액	9250.2	18110.5	11070.7	7927.2	9370.3	7964.5

소득계층별로 순저축보유액을 보면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부채대비 저축률이 높아 순저축보유액은 높아지고 있었다(표 8-21 참조). 부채대비 저축률

은 저소득층 맞벌이가 1.7로 가장 낮았으며 고소득층 비맞벌이가 그의 두배가 넘는 3.5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또한 각 소득계층별로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더 높은 부채대비 저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순저축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고소득층 비맞벌이의 31,028.0천원이었으며 이에 비해 고소득층 맞벌이는 그의 약 절반수준인 16,999.8천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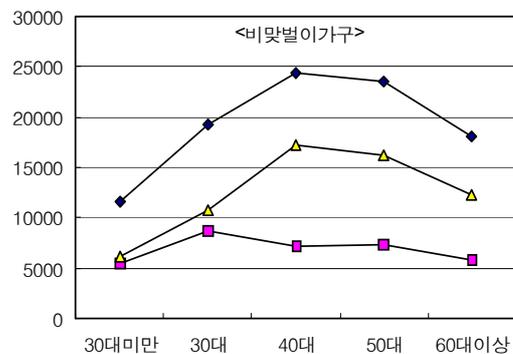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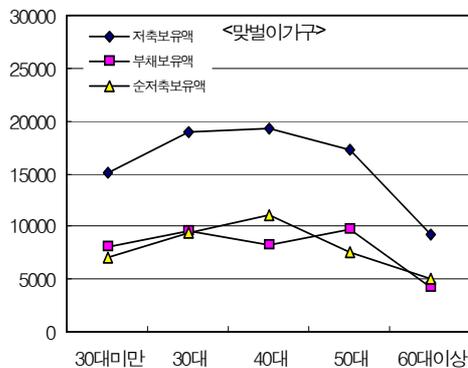
<표 8-21> 소득계층별 순저축보유액

(단위: 천원)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고소득/저소득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저축보유액	7552.3	9285.3	15486.0	17996.3	31994.7	43493.1	4.24	4.68
부채보유액	4339.0	4024.9	7684.2	8049.2	14994.9	12465.1	3.46	3.10
저축보유액/부채보유액	1.7	2.3	2.0	2.4	2.1	3.5	1.24	1.52
순저축보유액	3213.3	5260.4	7801.9	9947.1	16999.8	31028.0	5.29	5.90

가정생활주기를 반영하는 연령계층별 맞벌이와 비맞벌이의 부채보유액 및 저축보유액, 순저축보유액은 <그림 8-4>에 나타나 있다. 30대 미만에서 맞벌이가구의 순저축보유액은 비맞벌이가구보다 많으나, 30대 이후에서 두집단의 저축 및 부채행태는 크게 달라 결국 40대 이후에서 비맞벌이의 순저축보유액은 맞벌이가구의 그것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후 맞벌이가구의 순저축보유액은 750만원 이하인데 비해 비맞벌이가구는 맞벌이가구의 거의 두배에 해당하는 순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림 8-4> 연령계층별 저축 및 부채, 순저축보유액



8.4 저축과 부채 구조 요약

맞벌이가구의 평균 총저축보유액은 18,140.7천원이고, 비맞벌이가구는 이보다 다소 많은 19,458.6천원이었다. 저축수단은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다양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인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노무직과 서비스직은 여타집단에 비해 사금융이용율이 높았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초기단계에서는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저축보유액이 많았으나 30대이후에는 비맞벌이가구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그 격차는 점차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가구의 69.1%가 어떤 형태로든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맞벌이가구의 부채보유비율은 73.5%로 비맞벌이가구의 67.2%보다 높았다. 이들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은행권과 할부 및 외상잔액 등을 통한 부채조달이 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직업이 관리전문직이거나 또는 중,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행권 등 제도권을 통한 부채이용이 활발하였다.

맞벌이가구의 부채규모는 8,890.5천원으로 비맞벌이의 7,413.8천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배우자가 관리전문직이거나 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보유액이 많았고 또한 은행 등 제도금융권을 통한 대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유리한 경우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용이함을 짐작하게 한다

IX. 맞벌이가구의 가계경제 기여도 산출

9.1 산출방법

주부취업의 가계경제 기여도는 다음 세단계에 의해 산출되었다. 먼저 배우자소득의 가구소득이 동일한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가계지출과 저축규모를 비교함으로써 주부취업에 따른 가계지출과 저축부분의 추가지출분을 산출하며, 이 값을 합함으로써 여타가구특성이 조절된 상태에서의 배우자소득을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6장)를 근거로 하여 취업관련비용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비목을 선정하였다. 앞서의 연구결과 동일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의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를 비교하였을 때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규모가 컸던 6개비목인 월세,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교육비, 공공교통, 사회보장분담금 중 주부취업의 경제적 목표로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월세와 교육비를 취업관련비용 지출에서 제외하였으며, 사회보장분담금은 장래시점에서 다시 수혜를 받게 되는 비소비지출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제외하였다.

여기에 외국의 선행연구(Democratic Study Group, 1990; Jacobs, Shipp & Brown, 1989 등)를 중심으로 주부취업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논의된 바 있는 외식, 피복 및 신발, 개인교통,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등을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생활을 함에 따라 보다 많은 경조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포함하였으며, 또한 친척에 의한 자녀양육 위탁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금 및 보조를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외식,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피복 및 신발, 공공교통, 개인교통,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경조비, 송금 및 보조에 대한 지출 등 10개 지출비목이 취업관련비목으로 고려되었다.

앞서 추정된 배우자소득분에서 산출된 취업관련비용의 합계를 감함으로써 가계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산출과정은 다음의 논리적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먼저 취업관련비용 외 사용된 지출분 역시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향상분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가사노동에 전념하였던 주부의 취업을 부가적 취업으로 간주함으로써 보육료 등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취업관련비용을 전적으로 배우자가 치러야 한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주부취업에 따른 취업관련비용은 해당지출비목에 있어서 동일가구소득과 가구특성을 지닌 비취업주부가구의 지출규모와의 차이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들어 5세의 미취학아동을 전일제로 보육원에 맡기는 취업주부가구가 월 30만원을 지불하는 반면, 마찬가지로 비취업주부가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오전에 아이를 맡김으로써 월 20만원을 지불한다면, 이때 취업주부가구의 취업관련비용은 10만원으로 산출된다.

9.2 주부취업의 가계경제 기여도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월평균 131,798원의 가계지출의 추가분과 436,691원의 저축추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배우자취업에 의한 추가소득분은 568,489원으로 추정되었다.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공공교통, 개인교통비의 취업관련비용으로 28,413원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배우자소득의 5.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취업관련비용 중 56.7%가 교통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배우자소득 중 취업관련을 제외한 540,076원이 가계경제에의 실질적 기여도로 산출되었다(표 9-1 참조).

<표 9-1>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전 체
가계지출 추가분①	131,798
저축 추가분②	436,691
● 배우자소득③(=①+②)	568,489
외식	
가사사용인급료	1,217 (4.3)
보육료	11,086 (39.0)
피복및신발	
공공교통	4,671 (16.4)
개인교통	11,439 (40.3)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경조비	
송금 및 보조	
● 취업관련비용 합계④	28,413 (100.0)
순기여액(③ - ④)	540,076
④ / ③ × 100	5.0%

(1) 배우자직업별

배우자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인 경우의 취업관련지출이 가장 많아서 월평균 180,070원으로 나타났고, 1,263,479원의 배우자소득 중 14.3%를 사용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가계경제에 대한 순기여액은 1,083,409원이었다. 배우자가 사무직인 경우 취업관련지출은 관리전문직 버금가는 95,728원이었으며, 이는 배우자소득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표 9-2 참조).

반면 배우자가 서비스직이거나 노무직/기타인 경우 취업관련비용이 1만원대의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그들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도 3%대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2> 배우자직업별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관리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기타
가계지출 추가분①	642,399	105,248	398,588	-58,871	119,775
저축 추가분②	621,080	576,921	443,376	408,756	398,774
● 배우자소득③(=①+②)	1263,479	682,169	841,964	349,885	518,549
외식			4,213		
가사사용인급료	18,898	2,090	2,673		
보육료	47,641	23,737	29,094	6,216	3,344
피복및신발	20,080		2,891		
공공교통	5,669	3,207	9,127	5,491	3,562
개인교통	75,541	25,644	38,639		6,752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경조비	12,241		9,091		
송금 및 보조					
● 취업관련비용 합계④	180,070	54,678	95,728	11,707	13,658
순기여액(③ - ④)	1,083,409	627,491	746,441	338,178	504,891
④ / ③ × 100	14.3	8.0	11.4	3.5	2.6

(2) 소득계층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관련비용이 배우자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3 참조). 고소득층 주부의 취업관련비용이 가장 높아서 월평균 96,359원을 지출하며 특히 개인교통

비 지출이 가장 많은 58,655원이었다. 고소득층의 주부는 월평균 736,396원의 소득을 벌며 이중 13.1%를 취업관련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관련비용을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중소득층의 보육료와 공공교통비등 취업관련 필수지출항목들에서 월평균 10,731원을 지출하였다.

<표 9-3> 소득계층별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가계지출 추가분①	69,922	34,219	98,686
저축 추가분②	242,488	346,461	637,710
● 배우자소득③(=①+②)	312,410	380,680	736,396
외식			
가사사용인급료			7,285
보육료	2,648	7,247	19,293
피복및신발			
공공교통		3,484	11,126
개인교통			58,655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경조비			
송금 및 보조			
● 취업관련비용 합계④	2,648	10,731	96,359
순기여액(③ - ④)	309,762	369,949	640,037
④ / ③ × 100	0.9	2.8	13.1

(3) 연령계층별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는 연령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2, 30대가구의 취업관련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의 경우 보육료 지출이 취업관련지출항목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개인교통비, 송금 및 보조, 경조비, 외식비의 순이었다. 20대이하의 경우 취업관련비용으로 월평균 92,766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배우자소득 635,865원의 14.6%에 해당된다(표 9-4 참조).

배우자가 5, 60대 취업주부인 경우 교통비, 피복 및 신발비 등의 지출이 많아 각기 60,421원과 57,564원의 취업관련비용이 집계되었으며, 배우자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12.4%와 15.0%였다.

반면 40대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관련비용이 거의 없음에 따라 이들의 소

득 574,824 중 5,698원의 취업관련비용을 제외한 569,126원이 순기여액으로 추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연령계층 중 배우자취업에 의한 순기여액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9-4> 연령계층별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가계지출 추가분①	115,480	168,320	43,931	132,981	22,776
저축 추가분②	520,385	399,394	530,893	354,310	361,675
● 배우자소득③(=①+②)	635,865	567,714	574,824	487,291	384,451
외식	6,700	1,377			11,304
가사사용인급료	2,174	670	643	3,789	
보육료	28,575	13,552			
피복및신발				1,678	13,677
공공교통	3,394	4,064	5,055	5,224	19,357
개인교통	26,471	13,260		49,730	5,500
이미용서비스		498			
장신구					
경조비	7,320	4,157			7,726
송금 및 보조	18,132	8,478			
● 취업관련비용 합계④	92,766	46,056	5,698	60,421	57,564
순기여액(③ - ④)	543,099	521,658	569,126	426,870	326,887
④ / ③ × 100	14.6	8.1	1.0	12.4	15.0

(4) 맞벌이가구의 가계경제기여도 요약

배우자에 의한 추가소득의 추정치는 568,489원이었다.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교통비의 취업관련비용으로 28,413원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배우자소득의 5.0%에 불과한 수치이다. 배우자소득에서 취업관련비용을 제외한 순기여액은 540,076원이었다. 배우자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주부가 소득도 가장 많은 1,263,479원이고 취업관련비용도 180,070원으로 배우자소득의 14.3%를 차지함으로써 여타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의 취업주부가 가장 많은 소득을 벌고 또 가장 많은 취업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기여액도 640,037원으로 타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또한 가계경제기여도는 연령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미취학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2, 30대가구의 취업관련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X. 결 론

맞벌이가구의 가계경제구조분석 및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1996년 가구 소비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30.1%에 이르며, 우리나라 가구들의 맞벌이여부에 따른 결정은 이중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 주부가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고소득층으로 가면서 자아실현성 주부취업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의 경우 젊은 가구 또는 높은 교육수준이 맞벌이 결정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고, 경제적 필요요인의 중요성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맞벌이가구를 연구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수립측면의 고려를 할 때 반드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의 맞벌이가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부취업은 추가소득을 창출함으로써 가계경제에 명백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배우자소득의 총가구소득에 대한 기여율은 30.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미국취업주부의 기여도인 24.4%(1988년 자료: Democratic Study Group, 1990), 일본의 23%(1994년 자료; 통계청, 1995)에 비해 5%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맞벌이가구 중 소득 최하위10분위에 드는 비율은 4.9%로 비맞벌이가구의 14.0%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즉 배우자소득은 해당가정의 가구원들을 빈곤에서 벗어나오게 하는 주요 수단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소비성향을 가짐으로써 자산축적의 원천이 되는 흑자액의 규모가 비맞벌이가구의 2.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주부의 취업요인이 대다수 가계의 경제력 향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배우자소득이 취업관련비용으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특정경제목표와 관련, 자산축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맞벌이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도리어 낮으며, 특히 취업관련비용에 극히 적은 수치임을 고려해 볼 때 가정의 여타가구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한편, 이들 취업주부들이 주어진 이중적 역할에 의해 압박적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가사노동사용인이나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서비스, 편의제품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근거는 미미하며, 더군다나 흔히들 추측하듯이 직장생활을 위해 보다 많은 옷이나 미용관련제품 구매를 늘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배우자소득의 가계경제에 대한 실제 기여도는 높다. 배우

자소득중 5.0%만이 취업관련비용으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95.0%에 해당되는 월평균 540,076원이 가계경제에 대한 기여분으로 산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관리전문직 또는 사무직이거나 또는 20대이하의 젊은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관련비용을 나타내었으며, 서비스직 또는 노무직에 종사하거나 자녀교육비지출이 높은 40대 맞벌이가구의 경우 추가소득의 거의 전부를 타가구원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취업관련비용으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 지출비목이 보육료였으며, 이 밖에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용지출의 흔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미취학자녀 보육의 경우 시간분배의 유연성이 전혀 없는 가사노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주부가 노동시장에 있는 동안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가사노동이며, 그런 측면에서 시간조절을 해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여타가사노동과는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맞벌이가구라는 사실에 의한 소득공제보다는 자녀의 보육료를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고려한 소득공제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주부취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업주부의 특성 또한 화이트칼라로, 젊은 층으로의 빠른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이들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관련비용을 지출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총체적 의미에서의 주부취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적, 질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따라서 관련정책 역시 현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미해(1987). *취업주부가정의 가계구조 및 가계관리형태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미·김혜연(1998).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 65-79.
- 김태홍(1996). *여성 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96-3.
- 문숙재·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39-53.
- 방하남(1996).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의 동태적 분석: 미국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한국사회학* 30(봄), 93-124.
- 송태희·박호용(1997). *우리나라 소비실태*. 연구보고서 97-04, 한국소비자보호원.
- 양세정(1997).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 양세정(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 양승주(1995).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행태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8(1), 63-87.
- 원종욱(1997). 소득계층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17(1), 29-39.
- 이기춘·민현선(1992). 도시신혼가계의 주부취업과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9(4), 107-120.
- 이현송(1996).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 소득의 관계*. Working Paper.
- 이현송, 한경혜, 강혜규, 정경희, 이해경(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6-25.
- 제미경·박명희(199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13.
- 통계청(1996). *1996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1997). *1997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1997). *1997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 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연구보고서 96-3.
- Becker, G.(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ecker, G.(1975). *Human capit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u, F.D. & Ferber, M.A.(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wn, C.(1982). Consumption norms, work roles, and economic growth. In C. Brown & J.A. Pechman (Eds.), *Gender in the workplace* (p.13-58).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 Bryant, W.K.(1988). Durables and wives' employment yet agai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37-47.
- Democratic Study Group(1990). *They didn't come to the party*(Special Report No. 101-32). Washington, DC: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Friedman, M.(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M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ggebeen, D.J. & Hawkins, A.J.(1990). Economic need and wives'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1(1), 48-66.
- Galbraith, J.K.(1977). *Economics and the public purpose*. Boston, MA: Houghton Mifflin.
- Geobel, K.P. & Hennon, C.B.(198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63-78.
- Hanson, S.L.(1991). The economic costs and rewards of two-earner,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33-634.
- Hefferan, C.(1982). Workload of married women. *Family Economic Review*(3), 10-15.
- Jacobs, E., Shipp, S. & Brown, G.(1989). Families of working wives spending more on services and nondurables. *Monthly Labor Review* (Feb), 15-23.

Lippert, A. & Love, D.O.(1986). Family expenditures for food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Family Economics Review*(3), 9–14.

Mincer, J.(1960). Employment and consump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merican Economic Review* 50(2), s74–83.

Mincer, J.(1969).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Aspects of Labor Economics*. NB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tchard, M.(1990). The value of the second income to two–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Lifestyles: Family Economic Issues* 12, 127–141.

Redman, B.J.(1980). The impact of women's time allocation on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2, 234–237.

Reilly, M.D.(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407–418.

Rubin, R.M., Riney, B.J. & Molina, D.J.(1990). Expenditure pattern differentials betwee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1972–1973 and 1984.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43–52.

Sexauer, B.(1979). The effect of demographic shifts and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on food–away–from–home expenditur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1, 1046–1057.

Strober, M.H.(1977). Wives' labor force behavior and family consumption patterns. *American Economic Review* 67(1), 410–417.

Strober, M.H. & Weinberg, C.B.(1977).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41–147.

Vickery, C.(1979).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The subtle revolution: Women at work*(edited by Smith, R.E.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1979.

Wilkie, J.R.(1991). The decline in me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income and the changing of family economic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Feb.), 111–122.

Yang, S. & Magrabi, F.(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8(2), 133–147.